임동선
임동선 목사 기념 화보집

✷

Preface

우리가 임동선 목사를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요,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나 분명 그에게는 특별함이 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혀 살아왔다.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다. 바울과 같이 예수님 한 분 만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았던 사람이다. 이런 삶을 살았던 원동력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화보를 통하여 그 자취를 살펴보고자 했다. 그를 우상화하거나 영웅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임동선의 삶이 어떻게 전개가 되었고, 그가 어떤 시대를 살았고, 그런 가운데서 그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 짚어 보고자 했다. 그가 태어난 소박한 섬마을 대부도에서 부터 시작하여 어떻게 지구촌을 자신의 목장으로 삼았는지 그 여정을 더듬어 보고 싶었던 것이다. 이 여정 속에서 우리내 삶과 유사한 것도 많이 있고, 우리가 감히 따라 잡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그는 비상한 기억력과 담력, 진취적인 마음, 모험정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청빈한 삶, 특별한 애국심, 설득력, 유머감각, 솔선수범, 사람들을 끄는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힘들은 어디에서 왔을까? 그의 근본적인 성품에서 온 것인가? 본래의 그의 기질에서 나온 것인가? 그에게 어떤 야망같은 것이 있었는가?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었는가?

그는 실제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취를 이루었다. 목회를 처음 시작했던 전도사 시절부터 부흥을 경험했고, 6.25 동란이라는 민족적인 비극 속에서도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던 인물이다. 군목으로 들어가 가장 높은 지위인 공군 군종감까지 했고, 이미 교회를 하면서 가장 다이나믹하고, 가장 창의적이며,

가장 영향력있으며, 가장 큰 이민 교회 중의 하나를 이루었다. 그는 이런 성취와 성공을 목표로 해서 사역을 했던 것일까? 참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그의 생을 깊이 들여다 보면 볼수록 그 반대임을 알 수 있다. 그는 그에게 맡겨진 일은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했다. 지게꾼이면 지게꾼으로서,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군인이면 군인으로서, 목회자면 목회자로서, 친구면 친구로서, 개인이면 개인으로서, 공동체이면 공동체로서 그는 최선을 다하였다. 지구촌을 목장삼아 세계를 여행할 때도 비행기의 3등칸을 늘 이용했다. 젊을 때야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93세의 마지막 남미 선교 여행 때도 그렇게 했다. 주변에서 목사님을 아끼는 성도들이 만류를 했어도 그는 그 것을 더 기뻐하였다. 아마도 그는 특별석 보다도 보통 사람들이 있는 평범한 그 곳에서 더 깊은 단잠을 잘 수 있었을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그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 무슨 생각이 그를 지배했을까? 그를 움직이게 한 삶의 원동력이 무엇일까?

그의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이런 의문들을 추적해 나가기를 원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그를 드려다 보기를 원했다. 지금까지는 그에 대한 자서전, 전기, 설교집, 그리고 그를 소회하며 쓴 글들을 통하여 그를 알 수 있었다. 알다시피 이런 것들은 글로 쓰여진 것들이다. 이번에는 그의 삶을 사진과 그림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그려 보기로했다. 딱딱한 글 보다는 그림을 통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의 삶을 조망해 보고자 했다. 우리는 그를 감성으로 만날 수 있고, 상상으로 만날 수 있고, 상징을 통해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 분의 웃는 모습을 통하여 그 분이 하늘과 맞닿았던 기쁨을 우리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 분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 역시 그 분의 고뇌와 간절한 소망과 회한과 아픔과 외로움과 새롭게 채워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분이 매일 구약 10장, 신약 10장을 읽었던 그 성경책을 실제로 봄으로 말씀에 게을렀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될 것이다. 그가 머물렀던 초가집을 봄으로 상상의 날개를 달고 그의 어린 시절로 가볼 수 있을 것이다. 그가 갇혔던 감옥, 동고동락했던 사모님과 함께 손 잡은 모습, 신학생 시절, 오대산 성령충만, 피난시절 피난 목회, 이승만 대통령 앞에서 회개를 외치는 설교,

학창시절, 군목시절, 유학시절, 인쇄소 시절, 교회를 설립하던 시절, 교육관 건립, 연합회 설립, 그가 세운 월드미션대학교, 그가 다녔던 세계 선교의 현장을 우리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화보집을 통하여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 그것은 어떻게 한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 세상에 왔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다가, 후세에 어떤 교훈을 남겨 주고 갔는지를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아니, 보여주기 보다는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이다. 이 화보집은 임동선 목사라는 개인 삶의 몇 개의 점을 연결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단순한 점들이 우리들을 임동선이라는 사람의 삶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는 통로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하나의 화보집을 통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담을 수 없다. 예수님 역시 그의 공생애 마지막 일 주일의 기록이 주로 남은 것 처럼, 임동선 목사 역시 그의 삶의 극히 일부 만이 화보집에 실렸다. 아마 실리지 않은 사건이나 내용들 중에 임동선의 생애 가운데 더 의미있고 주목할 만한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적당한 양의 부분만을 허락하지 않으셨나 생각을 해본다. 임동선 목사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발간한 이 화보집을 통하여, 93년 동안 살았던 한 사람의 생애 속에 들어가 그가 뿌려놓은 씨앗들이 각자의 가슴 속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나무가 되어, 꽃을 피우고, 열매 맺기를 원한다.

임성진 (월드미션대학교 총장) 드림

Content

01 한국에서

02 미국에서 세계로

03 기록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로다

갈라디아서 6:9

01
한국에서

유년시절부터
공군 군종감이 되기까지

1923 출생

임동선 목사는 일제시대인 1923년 11월 13일, 경기도 부천군 대부면 동리 1496번지에서 농사를 짓는 아버지 임근회씨와 어머니 홍정옥씨의 8남매 중 6째로 태어났다. 임동선 목사가 태어난 대부면은 인천에서 배를 타고 2시간 가는 서해안의 아름다운 섬 마을이다.

임동선 목사 생가

늘푸른 바다와 작은 산들이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이 섬에선 태어난 임동선 소년은 자연을 벗하며 꿈을 가득 품고 자랐다.

대부면의 유일한 한학자이셨던 할아버지는 인생 최초의 선생님이셨다.

독서량이 많았던 할머니는 늘 역사 속의 영웅들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효자효부셨던 부모님은 순종하는 삶을 통해 어른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다.

"동선아"

"예."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대답을 하고 뒤를 돌아보니
거기엔 나를 그리도 사랑하셨던 할아버지가
무명 바지저고리 차림으로 서서 나를 부르고 계셨던 것이다.
할아버지 곁에는 할머니도 계셨고
또 효자로 소문났던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도 함께 계셨다.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흐르는 더운 눈물을 손수건으로
훔쳐 내야만 했다.

1990년, 고향 옛집 방문 중에

1945 감옥에서 부르심

북한의 감옥에서 주의 종이 되겠다는 서원기도를 하다.

해방 후, 임동선은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념 갈등이 극에 달한 혼란한 정국에 공산주의의 정체를

파악하고자 북한을 방문했다.

그러나, 남쪽에서 넘어온 스파이로 몰려 체포되고 말았다.

“친애하는 인민 동지 여러분,

이곳을 염탐하러 온 이 자를 어떻게 하기 원합니까?”

"사형에 처해라!"
"죽이시오!"

“좋소. 동무들의 열화와 같은 의견을 받아들이겠소.

남조선 스파이 임동선을 사형에 처한다…!”

사형선고를 받고 감방으로 돌아온 임동선은
억울함과 두려움에 떨었다.

벽에 머리를 박고 주먹으로 벽을 때리며 몸부림을 쳐봤지만

그의 생명을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때, 집안에서 유일하게 예수를 믿는 넷째 형 임수열 전도사가 생각나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 만일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신다면 우리 형님처럼 신학공부를 하고

형님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동선아, 안심하거라.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는 나의 종이 될 것이다.’

알 수 없는 평안이 밀려왔다.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영혼의 안식이었다.

다음날 아침, 군인 두 명이 들어와 임동선을 어디론가 끌고 갔다.

그곳은 김일성의 집무실이었고,

놀랍게도 그곳에는 만주에서부터 알고 있던 김성환이 있었다.

그는 김일성의 최고 정치고문으로 일하고 있었다.

김성환은 김일성 앞에서 임동선을 변호해 주었고,
김일성은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이렇게 말했다.

"동무, 나는 동무 같은 훌륭한 청년이 필요하오.
평양역 앞에 있는 인민위원회에서 동무의 역량을 과시해 주시오."

다 죽어가던 목숨이 살아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조국을 분탕질한 김일성과 함께 일할 수는 없었다.

38
ПАРАЛЛЕЛЬ
СЕВЕРНОЙ
ШИРОТЫ

38th
PARALLEL

三十八도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임동선은 좀 더 공부하고 돌아오겠다고 말했고, 그 말을 들은 김일성은 흔쾌히 허락하며 38선을 넘어갈 수 있는 증명서를 임동선에게 주었다.

그리하여 임동선은 38선을 넘었다.

하나님은 청년 임동선을 죽음의 문턱까지 이끌어 가셨다.

생명이 자기 것이 아님을 철저히 깨닫게 하셨다.

죽음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을 수 밖에 없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를 항복시키셨고 그는 하나님께 붙잡히게 되었다.

1948 황학섭, 장갑성씨의 장녀 재순과 결혼

결혼식 후 이튿날 새벽 교회에서 들려오는 종소리에 일어나
우리는 나란히 손을 잡고 교회로 향했다.
지금 고백이지만 내가 아내의 손을 잡기는 그때가 처음이었다.

대구 신명여학교 시절의 임재순 사모

황학섭 씨의 4남 1녀 중 장녀로 태어났다.

1949 **서울신학교 시절**

오른쪽으로부터 황재열, 임동선, 임수열 전도사

처음 참석한 신학교 부흥회 집회에서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죄의식이 밀려오면서 도저히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숨을 쉰다는 것 자체가 두렵고 떨렸고,

그대로 엎드려 밤을 새어 기도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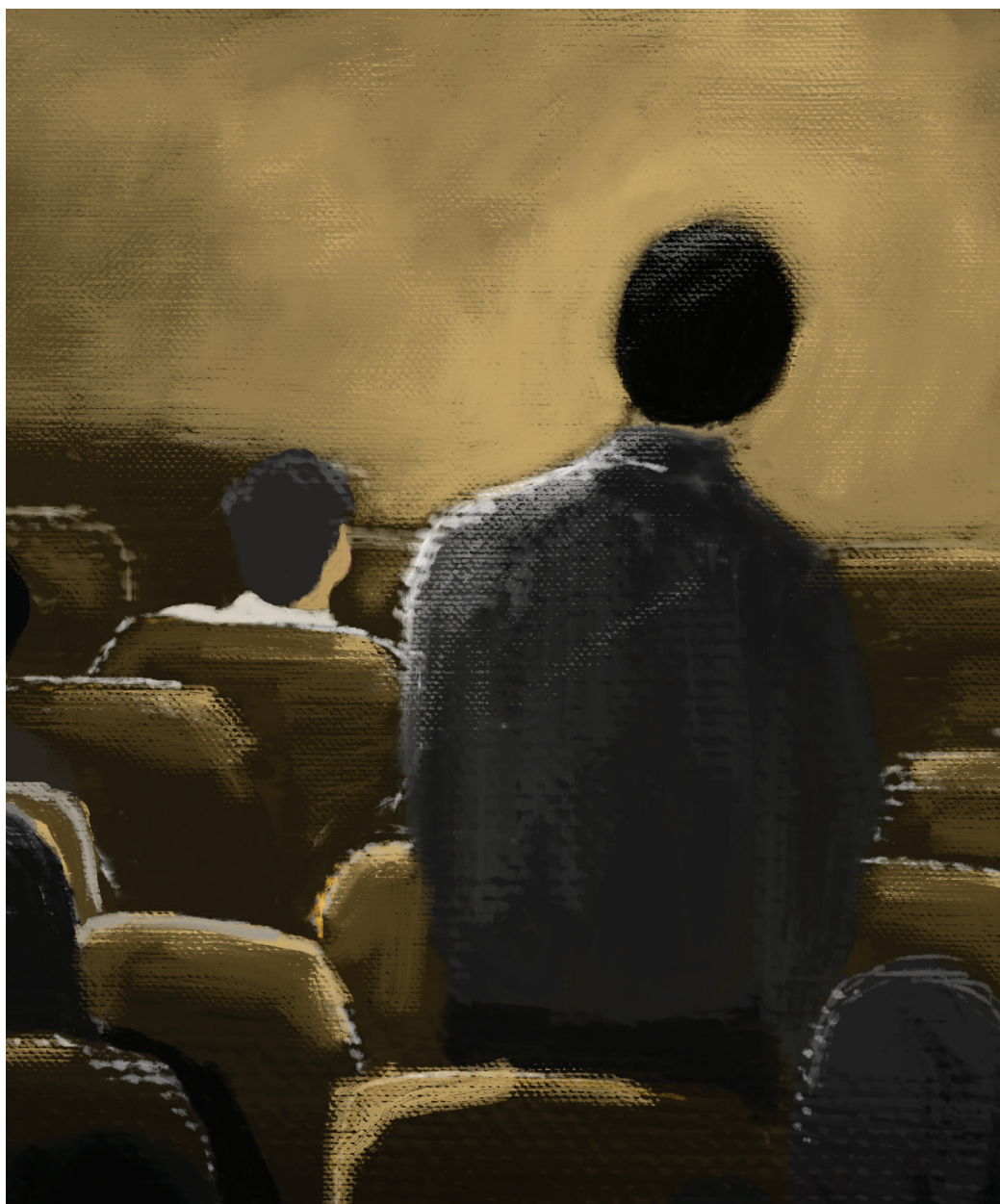
한밤 중에 밝고 환한 빛이 그의 마음에 비춰져 옛일들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랐다.

낯 뜨거워 고개를 들 수 없었고, 하나님 앞에서 죄목을 하나하나 아뢰며 용서를

구했다.

밤을 새우고 나니 어느덧 새벽기도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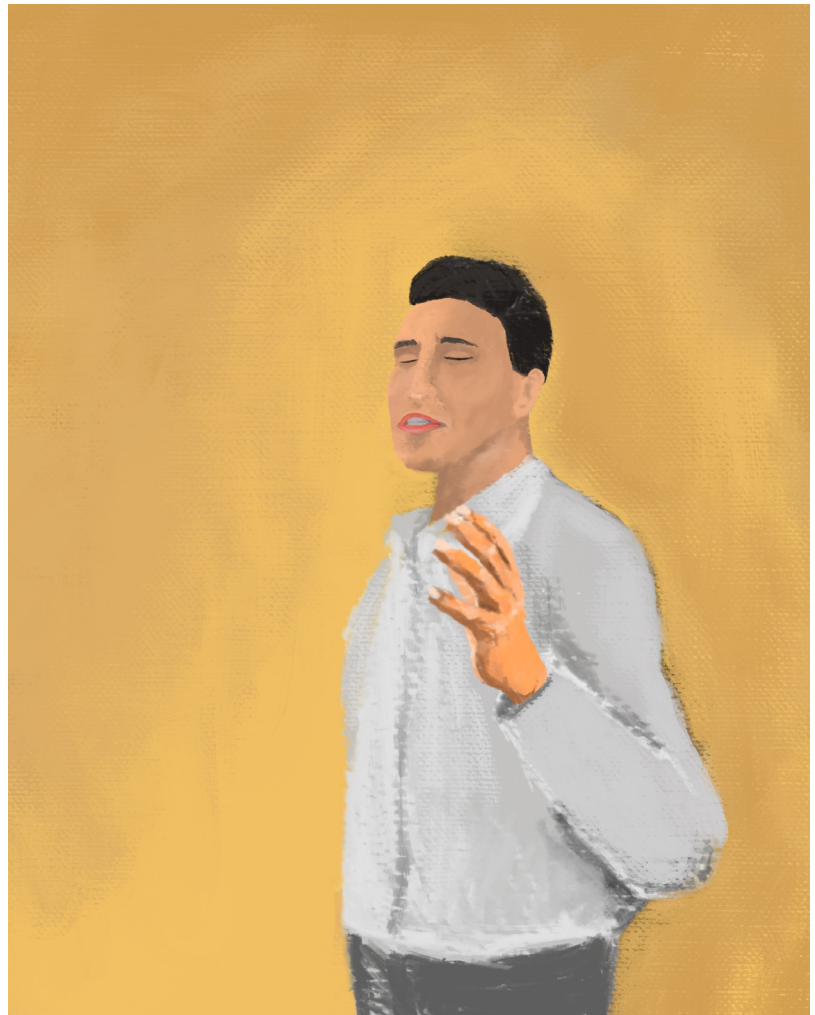
강사 목사님은 철저히 회개할 것을 강권하며 간증할 사람은 하라고 했다.

학생들은 하나 둘 간증을 시작했다.

임동선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수많은 학생들의 눈이 그에게로 쏠렸다.

“나는 오만하고 무례했습니다.

하나님을 무력한 존재로 깔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부끄러움이 담긴 그의 간증이 끝났을 때

강당은 학생들의 박수 소리로 떠나갈 듯 했다.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밖으로 나온 그의 얼굴엔 맑고 신선한 바람이 스쳤다.
무척이나 행복하게 느껴졌다.
그의 입에서는 찬송가가 저절로 흘러나왔다.

1948 지게차 전도

임동선은 신학교를 다니는 데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지게꾼 일을 시작했다.

쌀 가마니나 과일박스를 등에 지고 오랜 시간 고갯길을 넘을 때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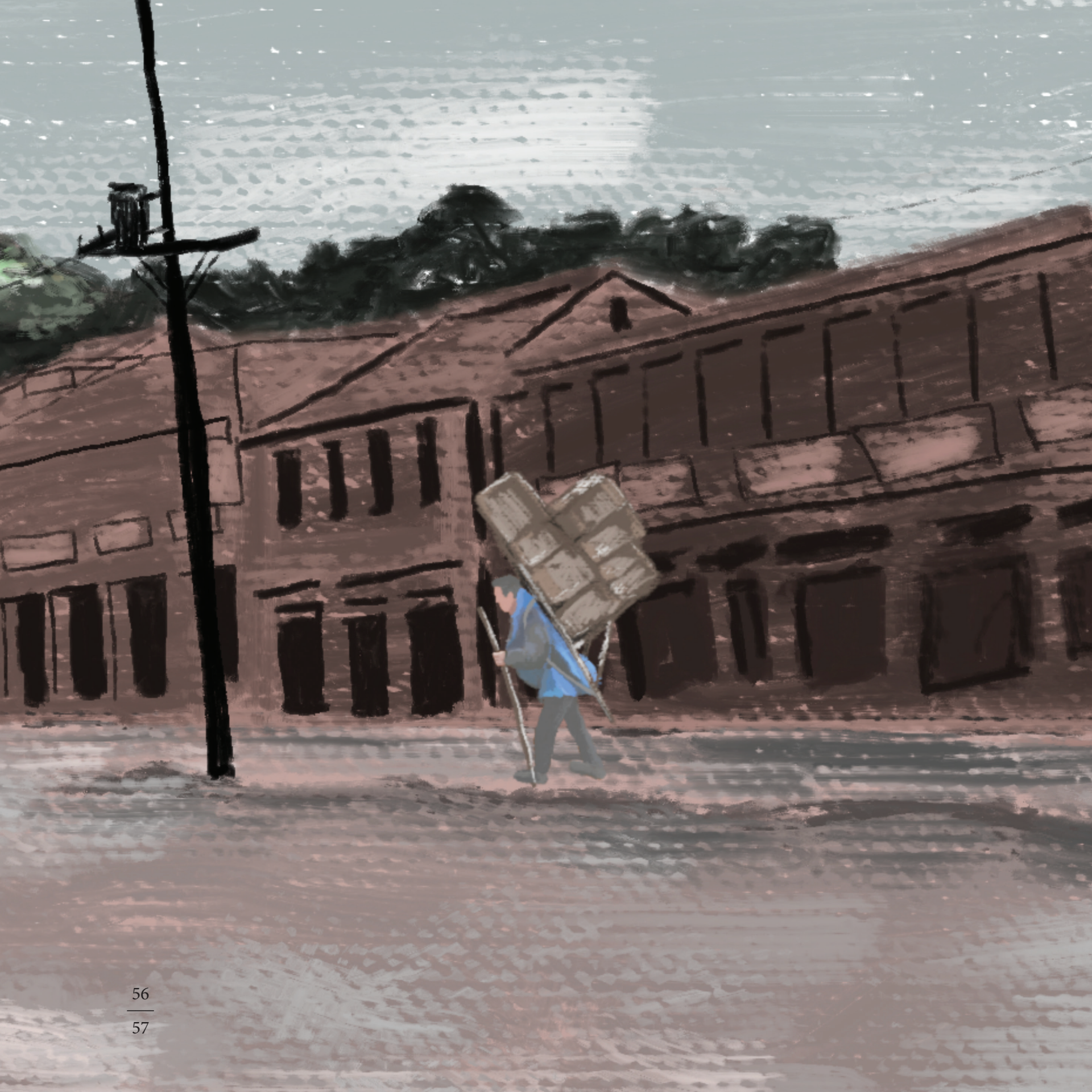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었고 수차례 실신도 했다.

짐을 모두 나른 후 한밤중이 되어 길거리에 인적이
드물어지면 대로에서 마음껏 소리치며 설교 연습을 하였다.

그러다 유치장에 끌려가기도 했으나

거기에서도 경찰관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그는 역경이 있든 즐거움이 있든 모든 삶의 장소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훈련의 장소임을 깨달았다.

1948 오대산 성령충만

임동선은 졸업 전 친구와 함께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 오대산으로 갔다.

일사각오를 하고 금식기도를 시작했다.

6 일 째 되던 날, 극심한 허기와 함께 마귀의 속삭임이 들렸다.

'부질없는 짓이야. 괜한 고생하지 말고 하산해.

교역자가 되면 금식기도할 일이 많은 텐데,

왜 지금 사서 고생을 하고 야단이야?'

마귀의 유혹은 집요했고

임동선의 눈은 선반에 놓여진 미숫가루로 향했다.

자신도 모르게 수저로 미숫가루를 떠서 재빨리 입에 넣었다.

천하를 얻은 기분이었다.

그 순간도 잠시, 자괴감이 몰려들었다.

금식 서원도 못 지켰고 친구 몰래 먹었다는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다.

먹은 미숫가루를 토해내려고 했지만 소용 없었다.

자신이 한 짓이 허망하여 걷잡을 수 없이 눈물만 터져나왔다.

밖으로 나오자 그의 깊은 곳에서 고백이 터져나왔다.

'오,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나약한 죄인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너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하나 같이 나약한 존재이다.’

그는 방에 들어가 다시 기도에 힘썼다.

그러자 갑자기 방에 불이 가득해 지는 걸 보았다.

불길이 그토록 거세게 임하는데도 옷이 타지 않았다.

뜨거운 성령을 체험한 것이다.

이는 그의 생애에서 가장 극적인 체험일 뿐 아니라

그의 삶과 사역을 붙들고 승리로 이끌어준 놀라운 사건이었다.

1949 처녀목회지 여주읍교회

"내가 신학교를 갓 졸업하고 개척교회를 시작한 때가 1949년 6월 15일이었다. 여주읍교회로 결정한 이유 중 하나는, 남들이 하려고 하지 않는 시골 목회를 해보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고, 나를 친동생처럼 사랑해 주시던 이성구 장로님의 고향이 그곳이라 그간에 진 빚을 갚는다는 심정으로 여주읍교회를 택했다."

자서전 『지구촌은 나의 목장이다』에서

어느 날이었다.

새벽 두 시에 한 자매가 급한 걸음으로 찾아오더니

부모님이 빨리 오시라는 전갈을 전했다.

성경과 찬송을 갖고 그 집으로 부리나케 달려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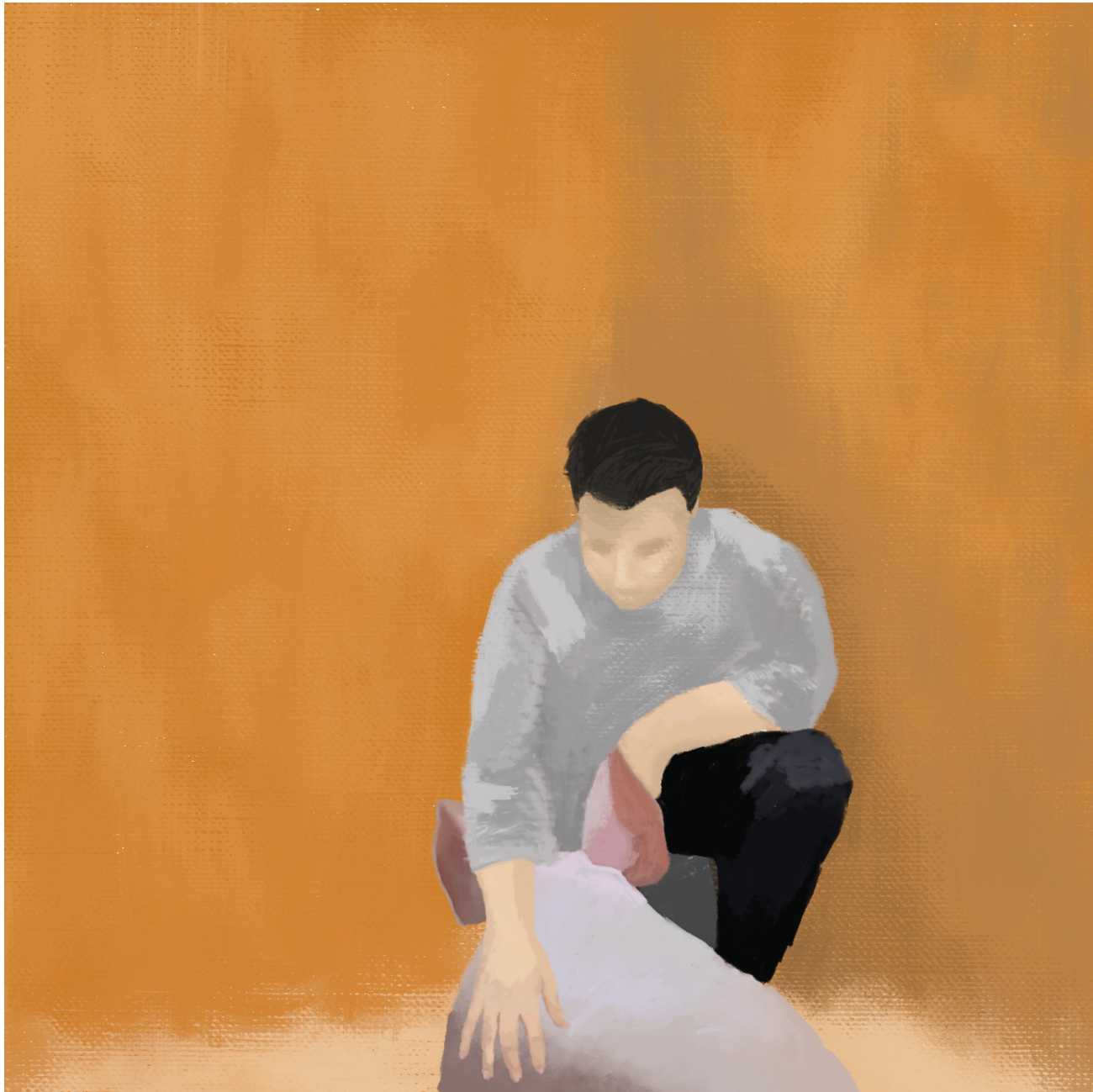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그는 겨면쩍게 웃으면서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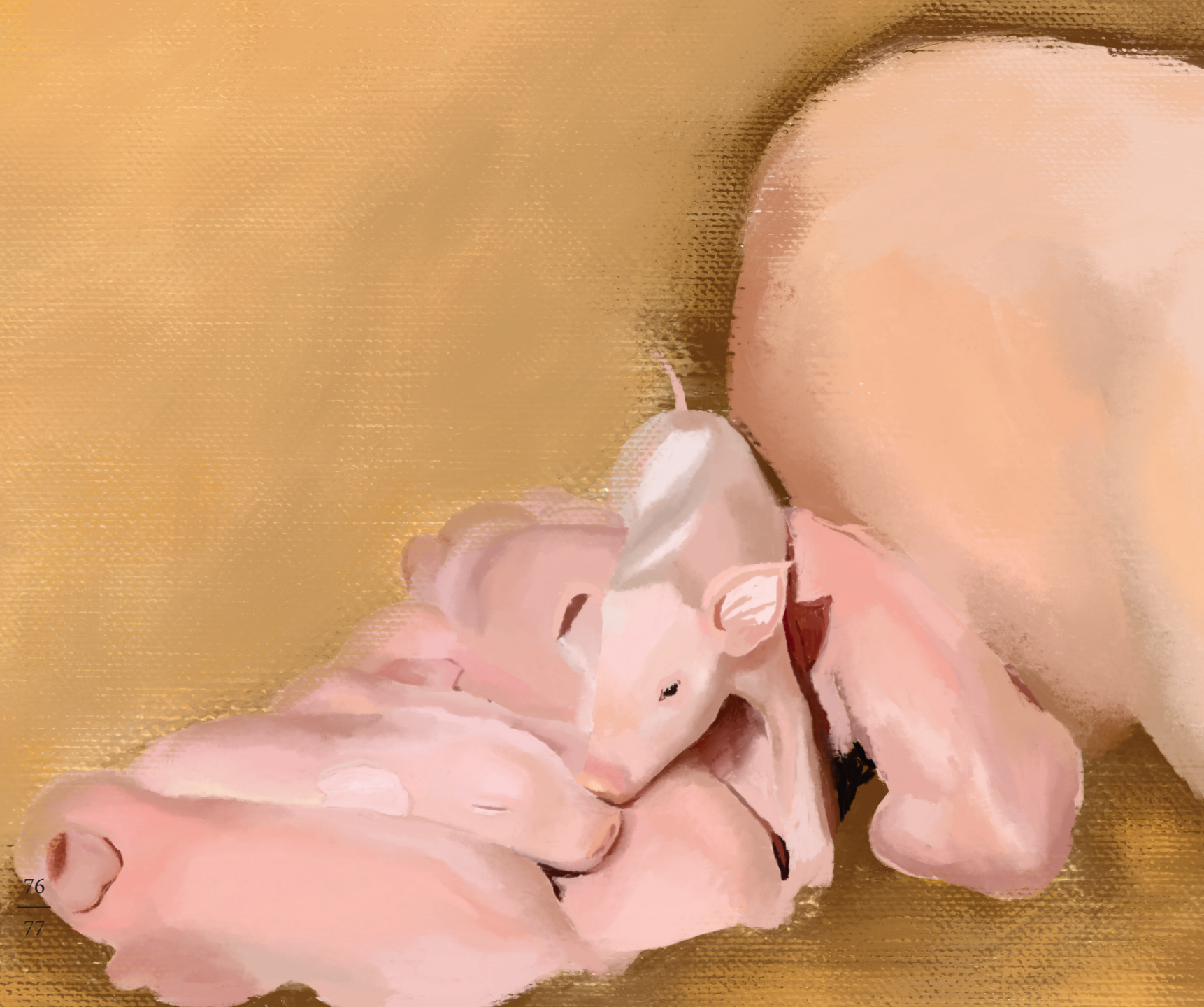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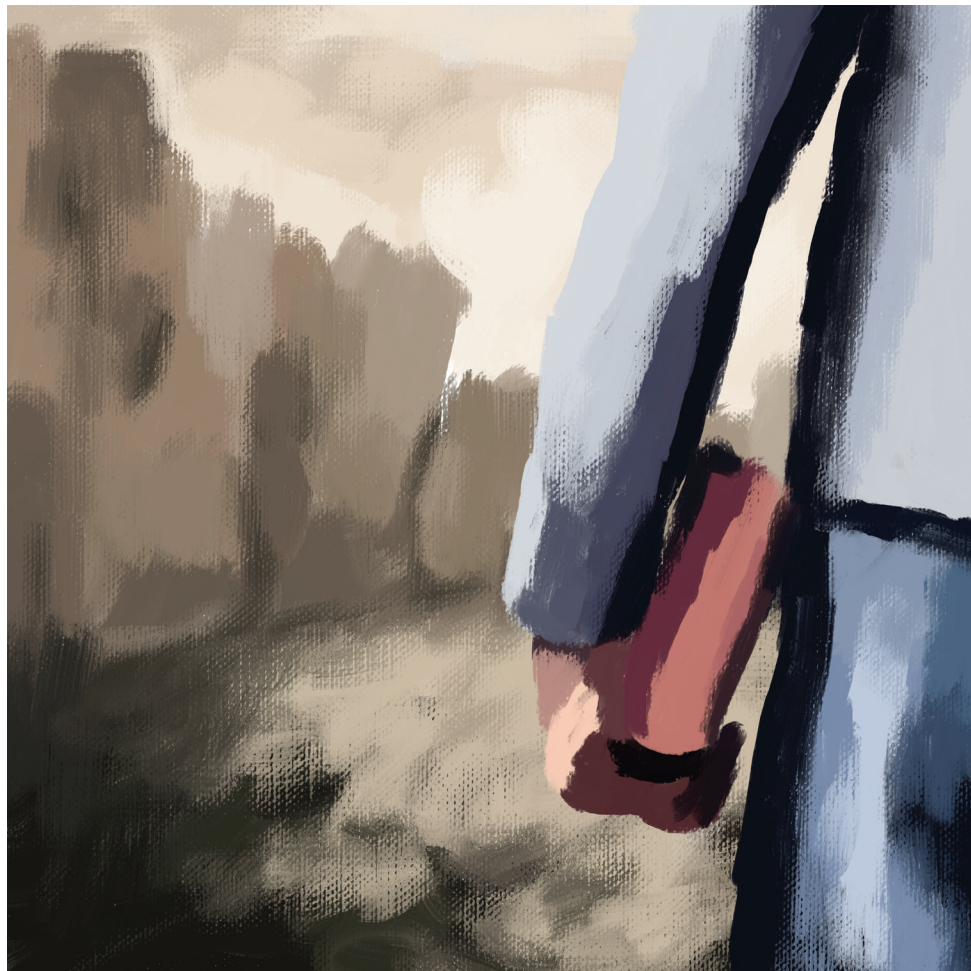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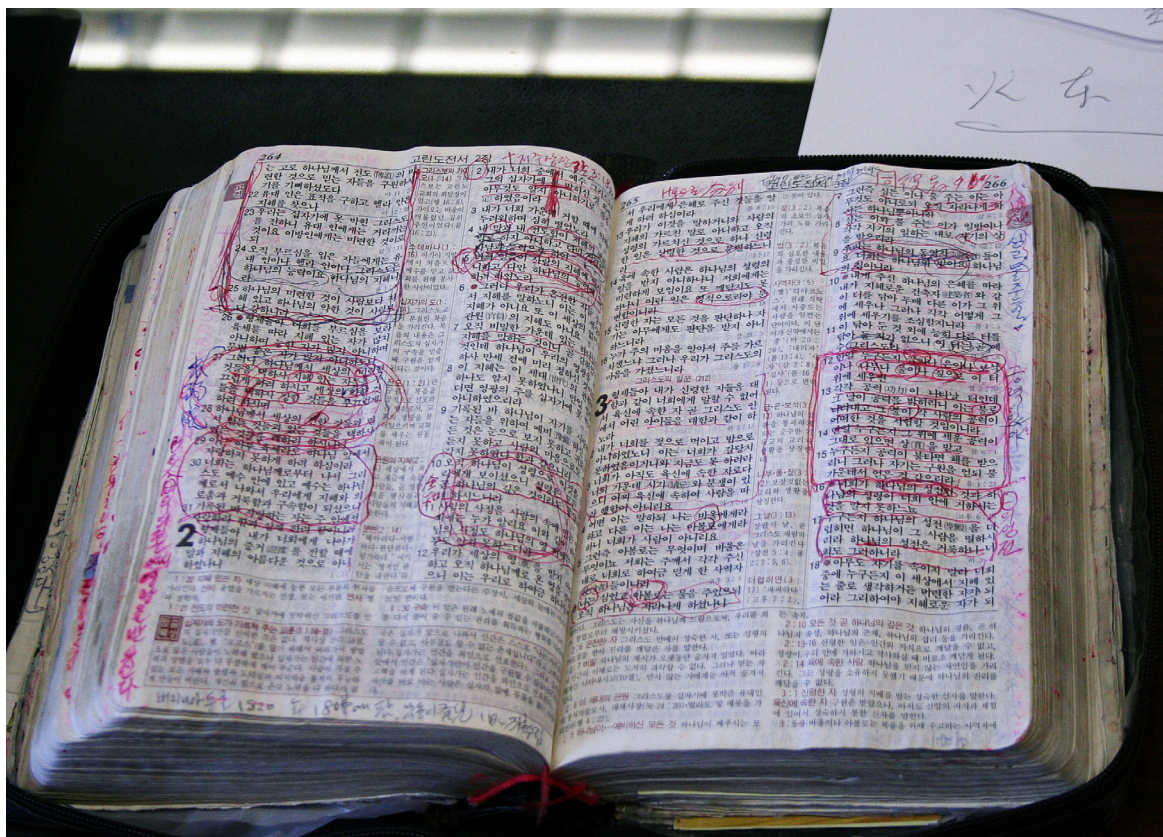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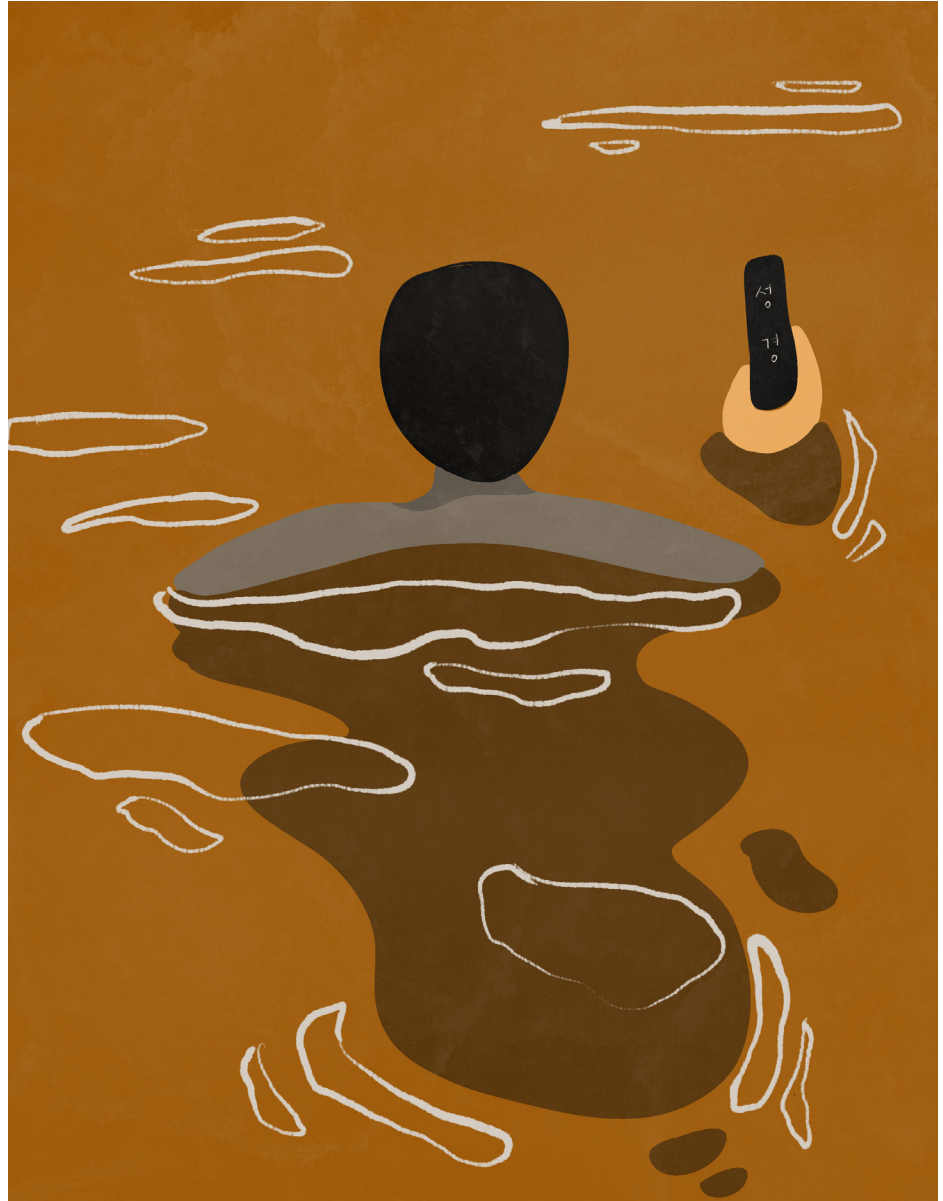
"우리 집 돼지 새끼가 끙끙거리기만 하고 새끼를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그 집에서는 전도사가 기도만 하면 돼지도 순산할 것을 믿고 있었다.

"하나님, 돼지도 생명을 가진 미물인데 불쌍히 여기셔서

새끼들을 잘 낳게 해 주옵소서."

놀랍게도 안수기도를 받은 돼지는 힘을 불끈 주더니 새끼를 열두 마리나 순산하였다.

돼지를 위해 기도하기는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중평에서 피난살이를 할 때 쯤, 어느 날 아침 장모님에게 인민군이 다시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지체할 틈 없이 빨리 가라고 등을 미는 아내를 뒤로 하고 황급히 성경책을 들고 떠나려 하자 친척들이 말렸다. "성경은 두고 가게나. 만일에 가다가 잡히면 전도사임이 들통이 날 것이고 그러면 신변이 위험하니 제발 성경책은 가지고 가지 말게나..." 그러나 순간적인 생각에 내가 성경을 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버리실 것만 같아 나는 그들이 위험하게 생각하는 성경책을 굳이 가지고 떠났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부터 일생을 함께한 성경. 유학 길에서도, 오대양 육대주를 선교차 다닐 때에도 늘 손에서 떠난 적이 없다.

강물이 세어봐야 얼마나 세랴 했지만 그게 아니었다.
강은 황하가 되어 굽이쳐 흐르는데 그 낙동강이 흡사 바다와
같았다. 강 한복판에서는 온몸이 물에 잠겼지만 성경을 놓지
않았다. 나는 이때 얼마나 귀한 신앙의 체험을 했는지 모른다.
부정적인 신앙보다 긍정적인 신앙, 소극적인 태도보다
적극적인 태도, 모방적인 신앙보다 창조적인 신앙, 관념적인
신앙보다 생동의 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필요한 것인가를
체험하였다.

남쪽으로 피난가는 길, 마주한 낙동강 앞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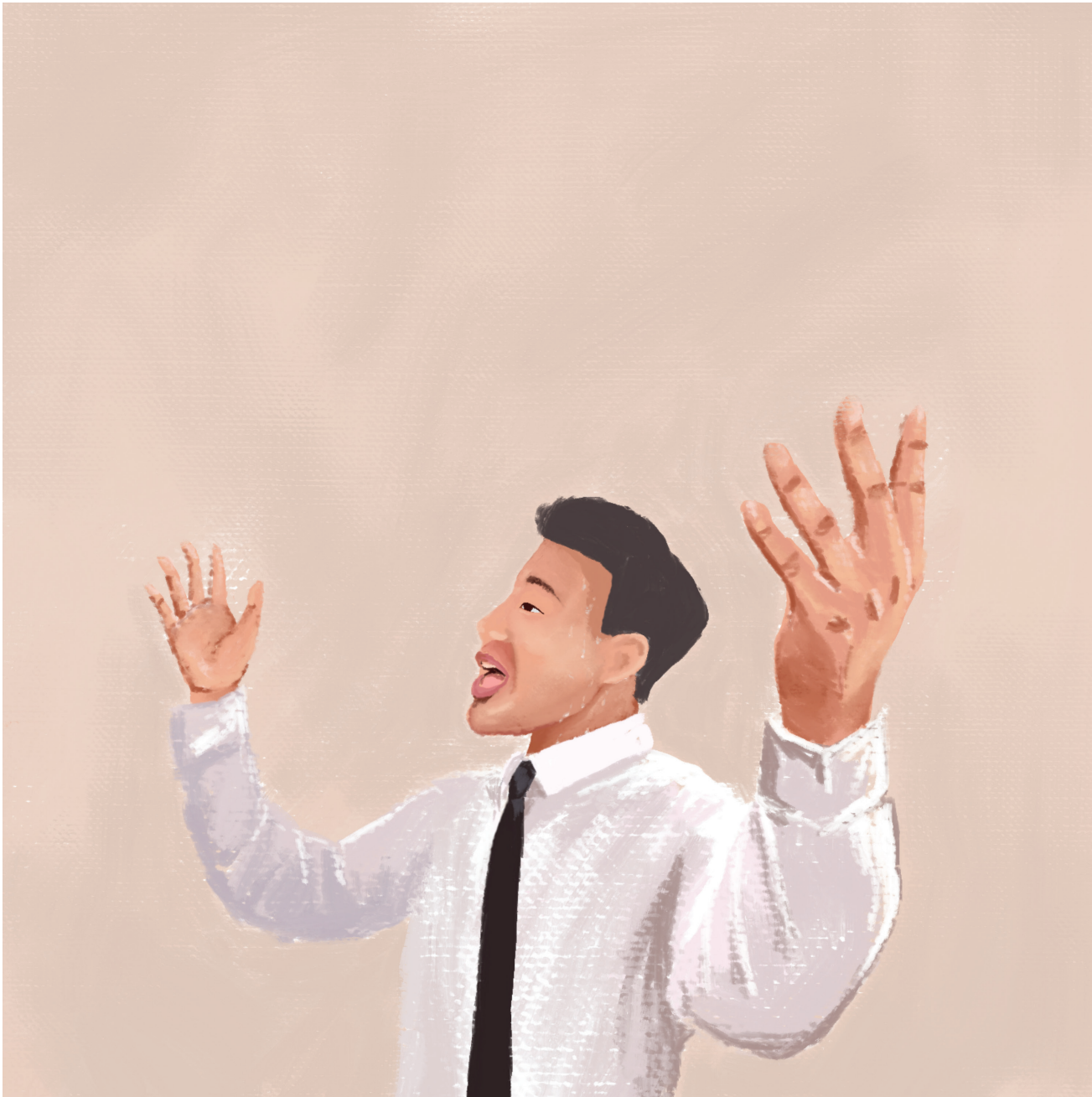
1951 **부산 동래 온천장 교회 시무**

목사 안수를 받고 첫 부임한 피난 교회 ‘동래 온천장교회’ 문 앞에서

조폐공사에 다니는 간부 한 분이 교인의 인도를 받아

생전 처음 교회에 나왔다.

그는 ‘저기에 무엇이 있길래 청년 목사가 저렇게 땀을 흘리며 열성적일까?’

하는 마음에 기독교를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매주일 교회에 출석하여 누구보다 진지한 태도로

설교에 귀를 기울였다.

몇 달이 못되어 그는 마음문을 열고 세례를 받았다.

임동선 목사가 흘린 그때의 땀은 열매 맺는 설교가 되었다.

참으로 구원의 땀방울이었다.

임동선 목사는 동래 온천장교회에서 2년 반의 목회를 마치고

전쟁의 여파로 건물마저 사라진 여주성결교회로 다시 돌아갔지만,

부임한지 5개월 정도 지났을 때 군대 소집 영장이 나왔다.

교단의 추천하에 공군군목학교에 입대하여 훈련을 마치고,

공군 중위로 경남 사천 비행단에서 군목생활을 시작했다.

1954 사천 공군 비행단 군목이 되어

“ 공군 생도때 처음 임동선 군목실장의 부흥회 설교를 들었는데 우렁찬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다. 그때 나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리고 나도 이 다음 임동선 목사와 같은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다.
그 후 목사님에게 공군군목이 되고 싶다고 했더니 달고 계시던 십자가 뱃지를
나의 군복에 직접 달아 주셨다. 임동선 목사님은 모든 일에 열정적이셔서
사관생도 모두가 존경했다. ”

공사 10기생 때 임동선 목사를 만나 공군 군종감이 된 장영출 목사

임동선 목사는 매일 아침 병원 환자들에게 우유를

끓여다 나누어 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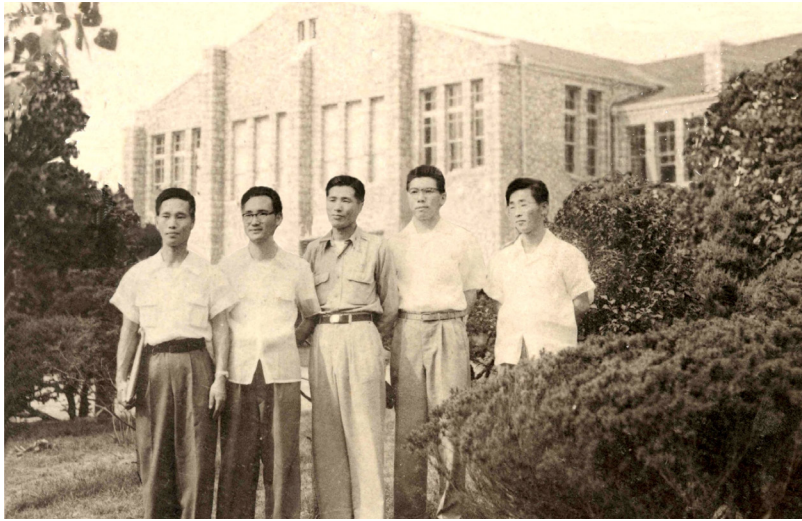
토요일이면 종종 사관 생도들을 집에 초대해 식사를 나누고,

지역 교회에서 자비량 부흥회도 인도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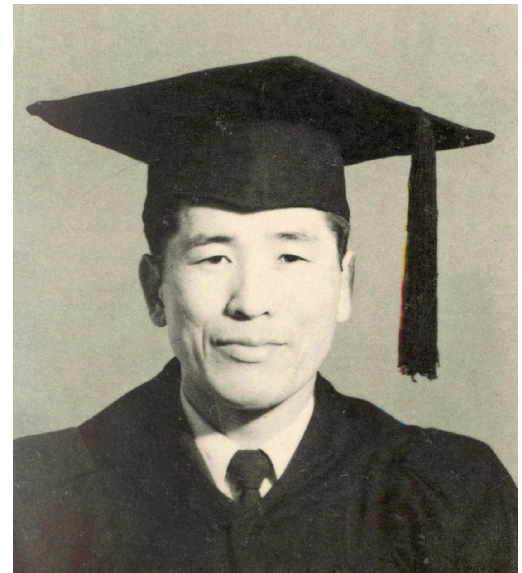
사천비행장에 유치원을 세우기 위해 공사하며

사천비행장 군목실에서 장진재 소위와

"주민들을 위한 대민 봉사와 유치원도 세워 군인가족 어린이들을 교육시켰다.
장례식에선 많은 이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다.
그때 극장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었던 신도들 중 많은 이들이 목사가 되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목회하는 이들이 무수하고 또 장로,
집사가 되어 한국 교회를 정성스럽게 섬기는 이들이 많다."

자서전 『지구촌은 나의 목장이다』에서

1958 **숭실대학교 재학 시절**

군종참모(중령) 시절, 서른 다섯살에 숭실대학교 철학과에 입학했다.

학생, 부흥강사, 민간교회 순회, 출장, 잠시도 쉴 틈이 없는 공군 군종참모시절이었다.

1959 **숭실대학교 졸업**

공군 초대 군종감

임동선 목사는 서울 공군본부로 전속하여 소령을 거쳐 1962년에 대령으로 진급하면서 초대 군종감이 되었다.

이승만대통령 내외가 참석한 가운데 드린 공군군목업무 창립기념예배 후 기념촬영
(왼쪽에서 4번째가 임동선 목사)

"...이사야는 거리에 나와 백성의 회개운동을 전개하여 그 민족과 국가를 위기에서 구출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먼저 해야할 것은 무엇입니까?"

임동선 목사는 이승만 대통령을 가리키면서 외쳤다.

"저 경무대에서부터 철저한 회개가 먼저 있어야만

이 나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살길이 열릴 것입니다!"

평소에 임동선 목사를 아끼던 참모총장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젊은 목사가 끝장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대통령은 예배를 마치고 교회 입구에서 임목사의 손을 꼭 쥐면서 말했다.

"임 목사, 내가 오늘 오랜만에 좋은 설교를 들었소이다.

부디 오늘 같은 설교를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외쳐주시오."

대통령은 미소를 머금고 손을 흔들며 떠났다.

논산훈련소에서 장병들에게 설교하는 모습

“말도 많고 굴곡도 험했던 군종감 생활도 4년의 임기를 마친 후,
1964년 12월 30일 11년간 몸담았던 공군의 푸른 제복을 벗고 민간인으로 돌아왔다.
확실히 군목생활은 특수목회였다.
나는 후회나 미련 없이 소신을 다해 주님이 맡겨주신
특수목양을 댓가 없이 끝내고 있던 자리로 돌아온 것이다.”

자서전 『지구촌은 나의 목장이다』에서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9:35

02
미국에서

교회 창립과 이민목회

1965 미국 유학길에 오르다

미국으로 떠나기 전 가족, 지인들과 함께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세 곳에서 나를 초청했지만
다시 한 번 나를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고 싶었다.
'지금이 공부할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아내에게 양해를 구하고 1965년 5월 19일 유학길에 올랐다."

자서전 『지구촌은 나의 목장이다』에서

“신학교 학비을 위해 조건부로 취직한 인쇄소에서 과거를 잊고 첫날부터 열심을 다하였다. 시키지 않은 청소와 정리 정돈까지 깔끔하게 일을 해 놓은 덕분에 일 주일 후 정식사원으로 당당히 임명되었다. 바쁘고 힘든 일과 중에도 내가 목사라는 것을 잊지 않고, 명절 때는 전사원에게 카드와 선물을 하였다. 내가 친절히 하자 다들 나를 좋아했다. 몇 몇은 나를 못마땅해 하고 질투하는 이도 있었는데, 개의치 않고 점심 시간이 되면 그들에게 샌드위치나 점심 도시락을 사다가 갖다주곤 했다.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자서전 『지구촌은 나의 목장이다』에서

1970 북침례교 신학교 석사 학위

1972 남가주 신학대학원 철학박사 학위

Graduate Schools of
THEOLOGY
PSYCHOLOGY
WORLD MISSION

Dissertation Approval Sheet

This dissertation entitled

A TEN YEAR PLAN OF CHURCH GROWTH
FOR THE ORIENTAL MISSION CHURCH IN LOS ANGELES

written by

Dong Sun Lim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Date June, 1981

1981 풀러신학교 목회학 박사 학위

임동선 목사는 밤낮으로 헌신적인 사역을 담당하면서도
공부를 멈추지 않았고 1981년 6월 13일 풀러신학대학교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초창기 미국 학생시절 노력하시던 모습이 내게는 영원한 교훈으로 남아 있다.
나이든 학생이 직장에서 돌아와 쏟아지는 잠을 쫓으려고 얼음을 끼얹으며 공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공부하지 않을 수 없었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근면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적어도 우리 자식들에겐 솔선수범하는 인생을 가르쳐
주신 분이 아버지 임동선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둘째 아들 임승천

1970

동양선교교회 창립 예배를 드리며

동양선교교회는 1970년 7월 14일 교회 창설 발족회를 가졌고 '선교, 교육, 봉사' (마 9:35)를 교회 목표로 그 달 마지막 주일, 임동선 목사 집에서 장년 16명과 학생 15명, 도합 31명이 모여 새 출발을 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6

***

교육

***

1973

임동선 목사와 주일학교 학생들의 티없이 밝은 얼굴들

임동선 목사는 2세 교육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쏟았다. 그의 “아메리칸 드림을 꽃피우기 위해서는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좋은 자녀교육, 신앙교육을 이민교회에서 맡아야 한다”는 교육철학 아래 교육부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갔다.

주일성경학교 수업의 한 모습

“제직중에 교육전문가들이 많았고, 2세에 대한 교육열이 참으로 높았다.
초창기부터 교육을 강조한 교회, 교육을 열심히 한 교회였다.”

오철훈 장로

1973

1973년도부터 시작된 여름 성경학교는 한인교회에서 가장 이름이 났다

성경을 배우면서 신앙을 키워나가는 것을 교육 목표로 정해놓고 유년주일학교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성경공부 시간을 많이 만들었다. 특별히 미국에서 자라나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 여름 아동성경학교를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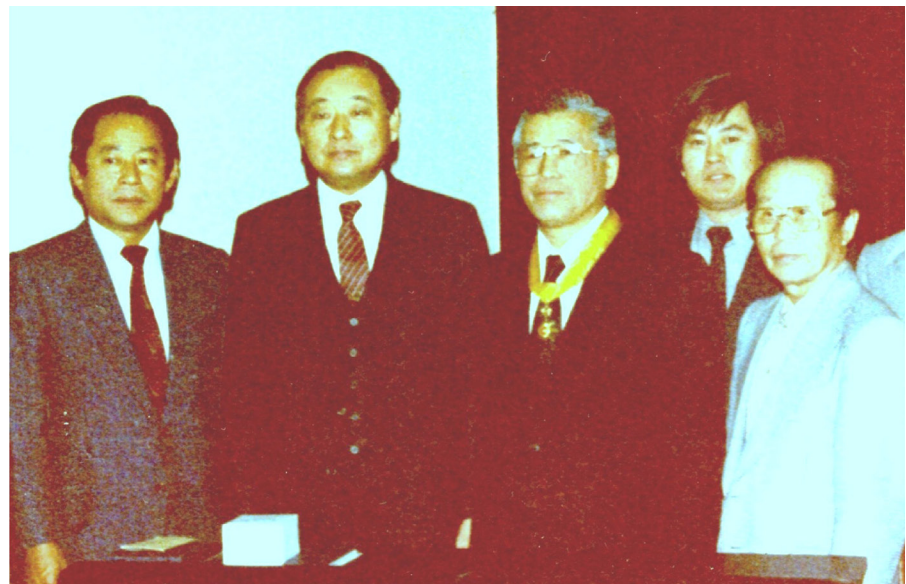
1970년대 동양선교교회 여름성경학교 모습

유년 주일학교는 이민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에게 인기있는 교회학교였다. 좋은 교사들이 재미있게 지도하는 주일학교에는 교인과 비교인 가정의 자녀들이 매주일 가보고 싶어하는 교회학교로 자리를 잡아갔다. 특히 여름방학 중에 실시하는 유년주일학교는 500명이 훨씬 넘게 참여하는 섬머스쿨로 성장해 갔다.

1978 **2세 위한 한글학교 시작**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어려서 이민온 자녀들에게 한글교육은 절대 필요하다"는 믿음으로 한글학교를 어린이날인 1978년 5월 7일, 이민사회 교회로는 처음으로 한글학교를 시작했다.

1981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다

임동선 목사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1981년 12월31일 국민훈장 동백장(교육부문)을 받았다. 임 목사는 특별히 남가주 한국학원 발전에 기여를 했고 동양선교교회 교회학교를 통하여 2세 교육에 앞장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을 받게 되었다.

제 2회 한국의 날 발표회 모습

한글학교에는 학생들이 계속 늘어났고, 1981년에는 학생 수가 200명까지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한인사회에서도 많이 알려져 갔으며 동양선교교회 교인이 아닌 다른 교인 자녀의 등록도 늘어 갔다.

1982 **제 1회 이야기 및 글짓기 대회 모습**

해마다 한글학교는 글짓기대회와 이야기대회를 가졌고 어린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이야기대회에 나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1983 **신학생 후원을 위한 만찬 모임**

1981년에는 주의 종이 되기로 작정하고 공부하는 청년들을 위하여 교회지도자 양성기관 설립위원회를 만들었다. 1983년 6월 26일 장학위원회는 신학생들에게 첫 장학금을 지급했다.

“50명의 학생 중 15명이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신학교 지망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기도의 어머니인 권사님들이 기도의 단을 쌓는 등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했다.”

이재권 장로

1984 **동양선교교회를 아주사신학대학 분교로 지정하는 서명식**

1982년 9월18일, 아주사신학대학의 신학강의를 동양선교교회 교육관에서 실시한 뒤 1984년 9월 2일에 동양선교교회를 분교로 지정하여 정식 개교하고 신학대학 강의를 이어갔다. 동양선교교회와 아주사대학의 학문적 교류가 계속되면서 아주사대학 교수들이 동양선교교회의 강단에 서는 일과 청소년 상담등을 위해서 성전을 방문하는 일이 점차 늘어났다.

1985 **동양선교교회의 각급 학교 교사들**

임동선 목사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우선시했고 우수한 전문 교육자와 훈련된 교사를 확보하는데 큰 관심을 쏟았다. 그리고 교육이 교회부흥 성패의 열쇠라고 믿었다.

“교사란 처음부터 너무나 벅찬 일이었다. 밤을 새워 공부를 해도 부족하지만, 어린이들의 이름 하나 하나를 부르며 기도할 때 내게 큰 힘이 주어졌다. 주일학교 교사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직분인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수 밖에 없다.”

교사 김인승

1988

교육부는 해마다 1,500 여명의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를 선발하고 교육하는데에도 특별한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교사들이 먼저 신앙적으로 더욱 훈련되고 사명을 갖도록 정기적으로 헌신예배를 드렸다.

교사 강습회

교사 성경 퀴즈 대회

교사 수련회

교사 훈련 세미나

“어릴적 주일학교에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껏 내 생활의 중심이 되고 있다. 주일학교 교사가 된 후 내게 온 변화가 있다면 전에 무관심한 성경을 이제는 읽고 연구하게 되었다. 날마다 나의 신앙이 자라고 있다.”

교사 김성경

1985

이민 2세를 위한 교육관 건립 추진

2세들의 배움의 집을 세우기 위해 전교인이 기도와 헌금을 시작했다.

에스더 여전도회 매주일 음식판매

에스더 여전도회 야드세일

중등부 동전수집

"어린이들에게 동전을 모으게 했던 일은 아주 잘한 일 중의 하나였다. '나도 하나님의 사업인 교육관 공사에 참여한다'는 협동정신을 불러주었고 저축정신도 아울러 심어주었다."

동양선교교회 30년사

고등부 Car Wash

1986

교육관 기공예배, 기공식

7월 20일 교육관 기공예배 후 임동선목사와 온 성도가 기념촬영을 했다.

임동선 담임목사와 건축위원장이 교육관 건축의 첫 삽을 뜨다.

8월 28일, 하나님의 축복 속에 교육관 기공식을 가졌다.

임동선 목사는 제 2의 청교도로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1세들이 되기 위해 교육관을 지어 신앙교육을 하는 하나님의 집을 만들고 싶다고 하나님께 간구했다.

1988 교육관 완공

미국의 조상들이 1620년 미국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지은 것이 교회이다. 다음이 학교이며 그 다음이 자기 집이다. 동양선교교회 성도들은 동양에서 온 제 2의 청교도로서 본당 건축보다 후대를 위한 교육관을 먼저 지은 이민자라는 신앙의 새 기록을 갖게 되었다.

“후일에 우리의 자녀들이 묻기를 왜 이 건물을 지었느냐 하거든 그때 그들에게 알게 하세요.
그대의 조상들이 미국땅에서 믿음의 유산을 전하기 위하여 땀 흘리며 세운 집이라고…”

교육관 2층 벽에 붙어 있는 기념판의 글

1988년 1월 30일 교육관 개관, 테이프를 끊고 있는 임동선 목사와 브래들리 시장, 그리고 내외인사

1988

교육하는 교회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1988년 1월 3일, 1,600명의 학생들이 교회에 출석했다. 교육부는 교육을 잘하는 한인 이민교회가 되기 위해 다양한 새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나갔다. 특별히 교육목사의 지도 아래 매주일 신앙과 학교생활, 가정생활에 유익한 내용들을 가르쳤다.

봄맞이 실내 캠프

초등학교 1, 2학년 200명을 대상으로 한 봄맞이 실내 캠프는 성경을 가르쳤고 체육과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린 꿈나무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 주었다.

김요셉 목사 초청의 청소년 복음화 대회 Come to Me

교육부는 해마다 중고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복음화대회인 Come to Me 행사를 주최했다.

어와나 헌신예배

1987년 한인교회로는 처음 어와나(AWANA)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어와나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0여개의 성경구절을 암송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도교사와 보조교사를 통해서 매주일 재미있게 공부를 하는데 모두 400여 명의 어린 학생들이 참가했다.

방과후 오후학교 모습

1988년 5월에 시작한 오후학교는 새 교육관 헌당 예배 후 이웃과 커뮤니티의 학생들을 위해 신앙교육과 학교교육의 연장을 위해 문을 열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훌륭한 교사들이 지도를 하며 범교포적인 학교로 인식되고 있어 타교회에 출석하는 학생과 비신자 자녀들이 많이 다녔다.

“오후 프로그램에는 학생이 300명이 넘었다. 피아노, 바이올린, 클라리넷과 태권도, 탁구, 농구를 한국대표 선수 출신들이 가르쳤다. 등록비도 적게 받았고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을 많이 도와주었다.”

초대원장 김재권 장로

1974 LA Western 길 건물 구입

"크렌셔의 교회는 빚을 갚기가 무섭게 교인들이 불어나 다시 교회를 옮겨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 교회는 웨스턴에 있는 큰 랄프스마켓을 교회 건물로 구입했다. 교회를 구입하고 나서 일체의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 아내는 여전히 봉제공장에 나가서 일을 했고, 아들은 월남전에 참전했으며 큰 딸은 병원에서, 작은 딸은 식당에서 일하고, 막내는 회사 광고지를 돌리며 돈을 벌어 그 수입만으로 생활을 꾸려갔다."

자서전 『지구촌은 나의 목장이다』에서

입당 예배 후 기념 촬영

임동선 목사는 남을 도와주기를 좋아하는 목회자이다.
항상 어려운 사람을 돕기를 좋아했고 동양선교교회는 불우이웃이나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데 먼저 앞장섰다.
창립목표 중의 하나인 봉사는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도우며
그들의 아픔을 나누는 임동선 목사의 실천적 사역이었다.

『동양선교교회 30년사』에서

***

봉사

***

1981

관광길에 나선 상락회 회원들

1980년 이민생활의 외로움과 소외감을 갖기 쉬운 노인들을 위해 상락회를 조직하여 성경공부, 영어교실, 건강교실을 마련했다. 이에 1981년 노인들을 위한 상락대학을 새로 설립하여 성경, 일반교양, 예능 등을 가르쳤다.

1983

상락대학 첫 졸업생들

65세 이상되는 남녀성도들을 위해 설립된 상락대학은 1983년 2월, 23명의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1983 **창립 13주년 기념 자선음악회**

1983년 10월29일, 윌셔 이벨극장에서 극빈자를 위한 자선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티켓 판매 수익금은 남가주지역 극빈자를 위해서 사용했다.

1983 **적십자사 헌혈운동 참여**

4월 10일 미국 적집자사가 이웃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헌혈 캠페인에 임동선 목사 및 동양선교교회 당회원이 솔선수범하여 헌혈에 참여했다.

1986 **불우 흑인위해 식품전달**

1987 **다운타운의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여전도회원들**

거주지가 없어 길거리에 노숙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임동선 목사는 12월 22일 LA시장실에서 톰 브래들리 시장을 통해 구제비 5천 달러를 전달했다.

1987 한흑 교류 촉진을 위한 기념예배

지역사회 선교를 위해 한인교회와 미국 주류사회의 교류를 중시해 온 임동선 목사는 특별히 흑인 커뮤니티와 신앙의 협력을 위해 한인 교계지도자로서 앞장을 섰다. 한흑관계를 폭 넓게 유지해 나가기 위해 흑인교회와 상호교류 프로그램을 갖고 설교 및 성가대 방문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강단교류를 이루어 나갔다.

City of Los Angeles

CITY OF LOS ANGELES FOUNDED 1781

GREETINGS

ORIENTAL MISSION CHURCH

As Mayor of the City of Los Angeles, on behalf of its citizens, it is a pleasure for me to extend a warm and coridal greeting to the members and congregation of ORIENTAL MISSION CHURCH on the occasion of the celebration of your 18th Anniversary.

This is certainly a very special occasion, and I am honored to join with other members of the community in commending your dedicated efforts and outstanding contributions to religious life. Your community spirit and interest have helped make our city a better place in which to live.

Best wishes for continued success in all future endeavors.

Sincerely,

Tom Bradley

TOM BRADLEY
MAYOR

July 31, 1988

CITY OF LOS ANGELES FOUNDED 1781

1988 동양선교교회는 1988년 7월 31일, 톰 브래들리 LA 시장으로 부터 한흑관계를 잘 인도해온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임동선 목사와 톰 브래들리 LA시장

1992

4.29 폭동 피해교인을 위한 구조 활동

4.29 폭동에 의해 출석 교인 중 79가정이 폭동 피해자로 등록되었고 5월 3일 주일부터 매주일 폭동 피해자를 위한 특별헌금을 드렸다. 주차장에는 남가주 재해대책 긴급구조봉사센터를 설치하여 식량과 음료수, 생필품 등을 폭동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지급했고, 폭동 피해자를 위한 기금신청, 의료봉사, 의료상담 등을 전문가들이 맡았다.

4.29 폭동 후 교민을 위한 법률 상담

임동선 목사가 4.29 폭동 헌금을 마이클 우 LA시의원에게 전달하고 있다

교회는 폭동 이후 8월까지 매주 특별헌금을 드렸고 모두 30만 달러를 모아서 폭동교인 가정과 폭동 피해 한인들에게 전달했다.

1979년, 세계선교현황 앞에서

"임동선 목사님은 사심이 없으신 목회자이다. 모든 것을 누구에게나 주고 싶어 하셨다. 선교는 주는 것인데 첫 헌금부터 누구에게나 주고 싶어하셨을 것이다. 동양선교교회를 처음부터 주는 교회로 만들고 싶어 하셨다. 특별히 임재순 사모님의 영향이 참으로 컸다. 사모님도 누구에게나 주고 싶어하신 분이셨다. 그래서 선교를 교회 첫날부터 시작하셨다."

함께 선교 사역을 담당했던 이요한 목사

***

선교

***

1976

한국선교지를 알리는 큰 세기판이 본당 옆에 붙어 있었다

창립 6주년을 맞이한 1976년은 모국 및 미국 내 선교에 대한 전교인들의 참여와 관심, 기도의 열의가 참으로 높았다. 선교부는 모국선교와 함께 한인동포를 위한 전도, 백인들을 위한 노방전도에 힘썼다. 특별히 해마다 성탄절에는 선교부가 앞장서서 이웃 멕시코의 어려운 사람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의류와 식료품 현금 등을 전달했다.

1976

동포신문에 소개된 멕시코 고아원 지원 소식

어려운 이웃 동포와 외국의 재난이 있을 때에는 전교인이 나서서 구호사업을 펼쳤다. 월남 피난민, 과테말라 지진, 모국 수해, 이리 폭발사고 등 전교인이 구호사역에 앞장섰다. 그 당시 동양선교교회의 불우이웃과 타민족 돕기는 지역신문에 자주 보도가 되었다.

"원조받는 입장에서 주는 위치로"

멕시코 고아들에 위문품

나성 동양선교교회서 마련

28日 임동선목사등 諸職8명 출발

로스앤젤레스 동양선교교회의 임동선목사와 선교부원8명은 28일 신도들이 수집한 구호품을 멕시코 엔씨니다시 소재 라 미션 고아원에전달했다

주로 내의 양복등 의류80상자를 수집하여 멕시코 국경을 넘어 사랑의 선물을 전달한신도들은 "우리가 모두 풍족한 살림을 하지는 못하지만 성탄과 새해를 맞아 우리 보다도 더 불우한 고아들을 도와주는데 큰 의의를 느낀다"고 말했다.

임동선목사는 과거에는 한국사람들이 도움만 받아 오다가 이제는 외국사람을 돕는데 긍지를 느낀다고 말하고 모든 신도들이 항상 절약하고 남을 동정하는 생활태도를 유지하는데에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동양선교교회는 1974년 성탄절에도 멕시코 티화나 시장에게 위로품 1백60상자를 전달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는데 이번의 멕시코방문도2년전의 구호품 전달때 티화나주민들이 진심으로 감사하고 굳은 친선을 약속한데에 힘입은 것이다.

이들은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는 요한복음 11장25—26절을 스페인어로 인쇄하여 멕시코 체류중 이들에게 배부하고 교회에 나갈것을 종용할 예정이다.

동양선교교회는 한국경기도 휴전선 근방의 군남 감리교회등 21개의 어려운 교회에 정기적으로 재정원조를 하며 선교사업을 계속 벌이고 있으며 한국에 장마나 가뭄등의 피해가 보도될때 마다 피해자들을 돕고 있다.

이 교회의 선교부(부장 한건수장로)는 한국의 불우한학생들이나 고아,불구자들을 위한 사업도 벌이고 있는데 선교부원들은 "우리가 미국생활에서 동포들을 도와줌으로써조국과의 거리를 좁히는데 큰 뜻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멕시코를 방문한 재직자들은 임목사 이외에 홍순웅, 이경택,박용장,이중용,김호순, 손소봉,김병숙,성인호씨등이다.

동양선교교회의 임동선목사(왼쪽에서 둘째)와 제직들이 멕시코로 출발하기직전 사랑과 복음의 선물을 실은 자동차앞에서 있다.

1976년 12월 20일 경
미주 동아일보 기사

멕시코 선교방문 때 기도 중인 임동선 목사

할리우드 거리에서 영어 전도지를 배부하고 있는 성도들

주일학교 교사들의 노방전도 모습

1978 **제 1회 “Come and See” 대학생 선교대회 포스터**

동양선교교회는 “Come and See” 라는 남가주지역 한인대학생 부흥회를 처음으로 시작하여 이민생활을 하는 수많은 청년들의 삶과 신앙에 큰 영향을 주었다. 한인대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미국 대학을 찾아가 성경을 가르치고 진로문제 등을 상담해 주는 등 캠퍼스 선교에 선구적이었다.

“Come and See를 통해서 남가주 대학에 복음과 전도의 불이 붙었다. 집회 때마다 1천명 이상의 대학생들이 모여서 큰 은혜와 사명을 깨달았다.”

이요한 전도사

1980년, 김석규 목사 초청 “Come & See” 부흥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비신자 한인대학생들도 참석하여 기독학생의 길을 걷게 함으로써 캠퍼스 복음화에 큰 계기를 마련했다.

일본 동경 연합 부흥회에서

경주 성결교회 앞에서

1978

한국, 일본 부흥 성회 인도

이민사회의 목회자로 동양선교교회를 크게 부흥 성장시킨 임동선 목사의 미주 사역이 알려지면서 임동선 목사를 부흥회 강사로 초청하는 교회들이 늘어났다. 임동선 목사는 한국을 떠난 1965년 이후 13년 만에 모국을 다시 찾아 전국 대도시를 순회하며 연합 대부흥회를 인도했으며, 한국에서의 부흥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한 주간 동안 일본 집회를 인도했다.

1980 **한국 미자립교회 지원**

1980년 모두 102개의 모국 선교지원 교회에 40달러~100달러를 지원했다. 매월 4천달러 이상의 선교비를 한국으로 보냈는데 미주 한인교회로는 가장 크게 한국선교 지원을 했다.

신앙은 '바로' 실천하는 것이다.

임동선 목사는 동양선교교회를 창립한 후 실천하는 교회로서 모범이 되기를 원했다. 그리고 창립예배부터 첫 한 달간의 감사 및 일반헌금 등을 한국의 농어촌 교회와 미자립교회에 보내면서 선교를 직접 실천해 나갔다.

"온 세계인이 경제불황을 겪고 있는 이 어려운 때에 정성어린 선교비를 잘 받고 있습니다. 이곳 농촌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만 섬기기로 작정한 저희들에게는 선교비를 받을 때마다 뜨거운 감사의 눈물이 흐릅니다. 모국교회에서도 하지 못하는 이 일을 이역만리에 있는 우리 동포교회가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복음전파에 더욱 애써야 겠다는 생각이 다시금 들게 됩니다."

함창성결교회 최복례 전도사

1979 매주 출석교인 2,000명의 대형교회로

1979년은 동양선교교회가 남가주지역 이민교회로서 부흥의 불길이 크게 타오른 해이다. 창립 초기부터 헌신적인 임동선 담임목사의 설교 그리고 새 교인을 위한 상담과 어려운 동포돕기는 한인사회에 좋은 교회 이미지를 심어 주었다. 무엇보다도 임동선 목사의 주일설교는 희망과 의지, 노력의 메시지로 알려졌고, 세계를 향한 선교 사역은 이민사회에서 언제나 선구적이었다.

1980 **서독 첫 선교사로 파송된 석태운 목사 (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

유럽과 아프리카지역의 선교 전초지가 될 서독에 석태운 목사를 파송했다. 새 이민교회로 유럽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는 동양선교교회가 처음이다.

초기의 서독 한인교회 예배 모습

1986 **홍성호 홍현숙 선교사 파송예배**

8월 10일에 선교사 파송식을 가졌다. 파푸아 뉴기니 섬에서 원주민 컴퓨터 교육과 신구약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했다.

원주민 지도자를 훈련하고 있는 홍현숙 선교사

1980 **연길에서의 임동선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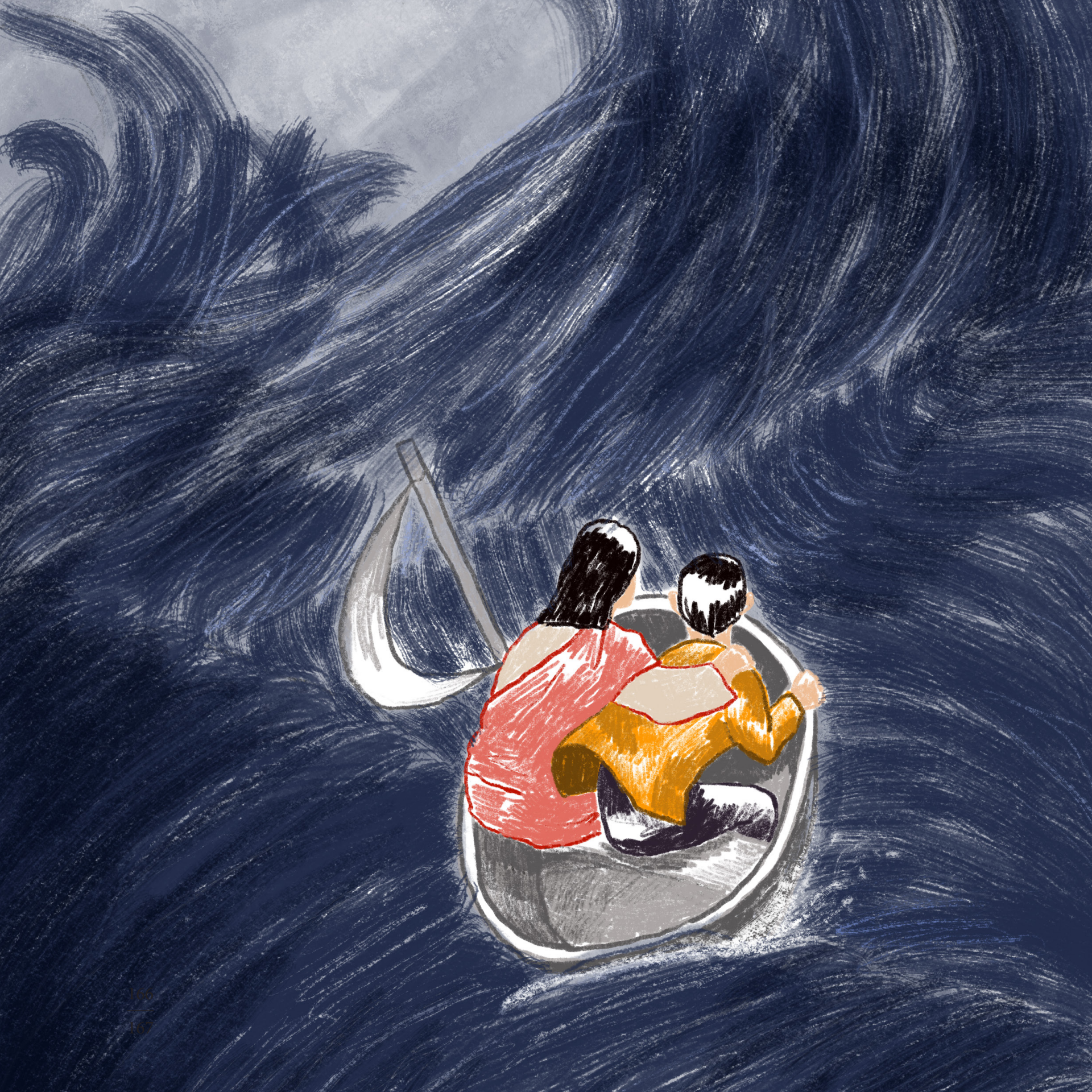
임동선 목사는 중국선교를 위해 8월 5일 중국으로 떠나 홍콩을 거쳐 북경과 장춘, 기타 여러지역을 순회한 후 8월 26일에 다시 돌아왔다.

중국 교회 방문

목탄강, 연변, 왕청 등지에서 만나는 신자들마다 같은 질문을 하였다.

“주님이 언제 오실 것 같습니까?”

세월이 좋아질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중국 땅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주님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이었다.

이들의 처지는 이해가 되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과 함께

‘이미 오신 주님’을 모시고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980 아프리카 여행

임동선 목사는 가나, 가봉, 케냐를 방문했다.

가나의 원주민들

한국인 목사의 설교에 귀를 귀울이고
예배가 끝났을 때는 몹시도 반겨 주었다.

가나의 어린이들

가나는 아프리카의 사회주의 국가로서 문화 수준이
높은 편이다. 청년들은 유학시키고 있는데 주로
공산국으로 보내고 있다.

가봉의 한인교회

목사가 없어 본국으로부터 수송되는 설교 테이프로 40여명의 신자들이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가봉 교포들은 '목사를 처음 만났다'면서 하루에 세 번 집회하는 즉흥 부흥회를 열흘간 해달라고 부탁해 왔다.

목사가 도착했다니까 이들은 대뜸 다음 행선지가 어디냐고 물었다.
케냐라고 했더니 그러면 일주일간 부흥회를 해달라고 떼를 썼다.
케냐행 비행기는 열흘에 한 번씩 있다는 것이다.
하루 세 번씩 집회를 했다. 정말 목이 마른 사슴들이었다.
말씀과 기도를 간절히 사모했다.
케냐로 돌아가는 비행장에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환송을 나왔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얼마 전에 대통령 각하께서 이곳을 다녀가셨어요. 그때는 우리 마음속에
각하가 빨리 떠나셨으면 숨 좀 크게 쉬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런데 목사님은 한 달이고 일 년이고 좀더 계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해요.”

자서전 『땀은 흘러도 기쁨은 샘물처럼』에서

1981

중국 단기 선교사에 이득애권사 파송

단기선교사로 임명을 받은 이득애 권사는 10월 28일 중국으로 출발하여 1개월 동안 상해, 북경, 길림성, 심양, 화전 등지를 순회하며 현지 전도인들을 만나 선교비를 전달하고 격려했다. 1983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중국을 다녀왔다.

“30여년 전에는 교회가 있었으나 지금은 믿는 사람은 다 귀국하고 몇 사람 남아서 예배를 드리던 중 이득애 권사님이 오셔서 우리 동포를 위해 수고해 주셔서, 새 예배 처소도 정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 중국 동포를 위해 보낸 정성과 사랑은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길림성 화전에서

중국 조선족교회 예배 모습

"지금 여기 우리 가정예배에는 평균 10여명이
나올 때도 있고 더욱 적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꼭 변화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1981 년 6월 21일, 상해에서 배준철

"...신자 가족은 몇 가정 있으나 조용히 계속
구령사업을 위해 일하고 있으며 근본 공포심이
있는 곳이라 순교를 각오하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심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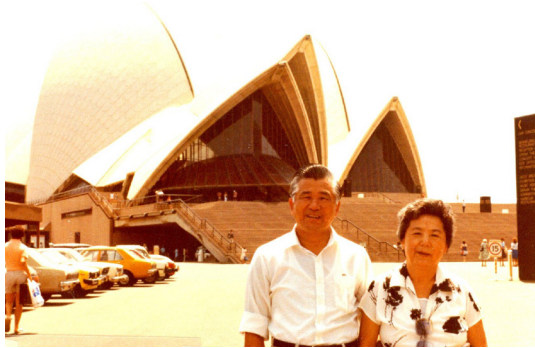
1982

파라과이 병원을 돌아보는 임동선 목사

5월 23일, 파라과이 병원 건립을 위해 6천달러를 지원했고
8월 29일에는 파라과이 한인연합교회(강두호목사)와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자매교회인 파라과이한인연합교회가 세운 원주민 교회와 교인들

1983 1차 선교여행: 호주, 동남아

임동선 목사는 안식년의 제 1차 세계 선교여행을 위해 1983년 1월 25일 오후, 임재순 사모와 함께 2개월간 일정으로 호주와 동남아시아 총 11개국을 향해서 떠났다.

호주

방글라데시

인도

"안식년 기간 중 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더욱 선교 현장을 다니며 전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파하게 될 주의 종된 사명을 더욱 이루겠다."

"여러분, 제가 미국시민이긴 하지만 영어가 한국말처럼
유창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마지막 5분 동안은
한국말로 설교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정말 한국어로 설교했다. 십자가 설교였다. 십자가를 가리키기도 하고, 팔을 벌리기도 하면서 외쳤다.

에스라 목사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전보다 더욱 열심히 통역했다. 회중들도 열기에 휩싸여 아멘을 연발했다. 집회가 끝난 후에 나는 그에게 무엇이라고 통역했느냐고 물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무슨 설교를 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내 설교를 한걸요. 그러나 십자가 설교인 걸
알았으니까 내용은 비슷할 겁니다."

성령의 감동은 진실로 언어 장벽을 넘어섬을 또다시 보았다.

자서전 『땀은 흘러도 기쁨은 샘물처럼』에서

2차 선교여행: 한국, 중국, 일본

1983년 5월 30일, 임동선 목사는 임재순사모와 함께 안식년 제 2차 선교여행을 떠났다.
7월 7일까지 일정으로 순방국은 중국, 한국, 일본 3개국이었다.

중국 연길

임동선 목사는 연길과 왕청의 교회를 돌아보고 신자들을 개인적으로 면접하며 신앙으로 격려와 위로를 해주었다. 교역자가 없었으므로 신자들은 서로 돌아가며 라디오 또는 성경읽기로 주일을 지키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 그들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재림 뿐이었다. 40년 동안 굳게 닫혔던 외계의 소식을 듣고자 임동선 목사가 묵고 있는 집으로 몰려왔고 모든 의문나는 점을 묻기도 하고 성경의 어려운 구절을 알기를 원했다. 그들은 혼자서 성경을 보다가 지도자가 없어서 목사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간절했다.

조선족 교회

3차 선교여행: 아프리카, 유럽

1983년 8월30일 안식년의 제3차 선교여행으로 유럽과 아프리카를 향해 떠나
아프리카 5개국과 유럽 6개국의 선교여행을 떠났다.

아프리카 케냐

“우리가 아프리카를 구원하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말씀 속에는 ‘우리들도 다른 나라 사람들과 같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도로만 돕지 마시고 와서 도와주십시오.’ 이 뜻이 담겨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먼저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인재를 양성해서 보내야 합니다.”

제 3차 선교여행에 대한 보고 중에서

“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모습이 오늘 이민사회에서 동양선교교회를 통해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정근 목사(유니온성결교회) ‘동양선교헤럴드’ (1989년 7월호, 창립 17주년 기념 특집)에서

1987

미주 이민사회 최대교회로 성장

선교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로 이름이 나자 동양선교교회에는 새 교인들의 출석이 계속해서 늘어났다. 1987년 1월에는 한 주간 출석교인이 5,700명의 대형 이민교회로 성장했다.

1988 Hollywood Bowl에서 부활절 새벽 설교

남가주 지역의 전통적 기독교 행사로 이름이 나 있는 부활절 새벽예배는 매년 Hollywood Bowl에서 개최되며 1만 5천명 이상의 교인 및 일반 시민이 참석하고 미국 TV 생중계를 통해서 방영된다. 부활절예배위원해는 서울올림픽의 해인 1988년 동양선교교회 당회장인 임동선 목사를 남가주 지역 소수민족을 대표하는 목사로서 특별 초청을 했는데 이는 크게 성장하고 있는 한인사회와 한인교계를 미국사회가 높이 평가를 했기 때문이었다.

임동선 목사는 이 때 한인 목회자로서는 처음으로 설교를 담당했다. 후에, 이민목회를 하면서 가장 뜻깊었던 일은 Hollywood Bowl에서 부활절 설교를 한 것이라고 회고했다.

1988 성역 40주년 기념 및 정년 은퇴 기념 예배

12월10일 은퇴 기념예배에서 임동선목사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살아온 삶이 더 없이 귀했으며 남은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교사역과 복음전파를 위해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내가 주를 위해 산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65년 삶 중에서 가장 소중하였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남은 여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교 사역과 복음 전파를 위해 더욱 헌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은퇴 정년 기념예배 이임사 중

바울 임동선목사
정년은퇴및
성역40주년기념예배
12. 10.
36
112
122
6

1990 성탄맞이 멕시코 방문

12월 14일, 임동선 원로목사를 단장으로 하는 의료선교단 43명은 5대의 버스에 선물을 가득 싣고 티화나 남단의 판초스마을을 찾았다. 이날 선물 전달과 함께 6명의 의료진이 봉사와 의료선교를 폈다.

1974년부터 온 성도들은 해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성탄선물을 모아서 티화나를 방문하는 것을 기쁨과 감사, 이웃사랑으로 여겼다.

티화나에서 사역중인 정현호 목사에게 교회당 공사비를 전달하고 있는 임동선 목사

티화나에 무료 의료선교를 간 의사선교회 일행

의료선교를 하고 있는 동양선교교회 의사선교회 회원들

“우리도 풍족하지는 못하지만 성탄과 새해를 맞아 우리보다도 더 불우한 고아들을 도와주는 것은 큰 보람이다. 한국사람들이 도움만 받아오다 이제 외국사람을 돕는데 나서는 것이 보람이다.”

1976년 12월 28일, 엔세나다 소재 고아원 방문 중에

1990 **임동선 원로목사 추대 및 이병희 새 담임목사 취임예배**

동양선교교회 창립목사인 임동선 목사의 원로목사 추대식 및 제 2대 이병희 목사의 담임목사 취임식이 1월 21일 교회 본당에서 축하와 은혜속에 열렸다.

"이민목회 20년은 하나님편으로 심히도 짧은 기간이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며 또 그 길은 험하고도 먼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보호와 인도, 힘과 지혜, 인내와 용기를 주심에 대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릴 뿐입니다.

이민교회로서 많은 축복을 받아 2세 교육과 지도자 양성,
국내 국외 지교회 설립과 선교, 국내외를 막론한 구호사업을
펼치게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와 온 교우들이
물심양면의 적극협력의 결과임을 새삼 밝히는 바입니다.”

1990년 1월, ‘동양선교헤럴드’ 신년호의 인터뷰에서

“1985년 3월 1일에 사우스베이 동양선교교회를 개척한 것을 시작하여 1987년까지 지교회를 8개 더 개척해 나갔다. 1987년에 이르러 세계각처에 OMC와 세계선교의 정신을 같이 하는 18개의 동지교회를 갖기에 이르렀다. OMC는 세계선교를 더 조직적이고, 또 활발하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임동선 목사의 목회정신과 창립정신을 같이 하는 18개 교회가 동양선교교회에 모여 세계복음선교연합회를 결성하고 창립예배를 드렸다.”

조영근 목사(당시 장로)

***

세계복음선교연합회
WEMA

***

1987 세계복음선교연합회(WEMA) 창립

동양선교교회는 공동적인 선교전략구성과 목회정보교환을 위해 1987년 7월 11일, 세계복음선교연합회를 창립했다.

1988 제 2차 WEMA 총회

6월 7일~17일에 제 2회 세계복음선교연합회 총회와 선교대회가 남미 파라과이에서 개최했다.
파라과이 총회에서 WEMA가 목사안수를 주기로 결정했다.

세계복음선교연합회 목사안수 예식 후

이날 목사안수식은 동양선교교회가 초교파 독립 교회로 목사안수의 기능이 없어서 목회자를 배출할 수 없었는데 세계복음선교연합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된 의미를 갖고 있다. 1988년 7월 10일, 총 3명의 전도사에게 목사안수 예식을 거행했다.

1989 제 3차 총회

1992 목사안수식

1997 유타동양선교교회에서 열린 제 11차 총회

1998 브라질 쌍파울로에서 열린 제 12차 총회

파라과이 강변 선교

2000 WEMA 성지순례

터키비시디아 안디옥에서

2002 제 16차 이탈리아 로마 총회 및 유럽 순회 영성 세미나

알프스 정상에서

목사 안수식

2003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 17차 총회

2004 알래스카 OMC에서 열린 제 18차 총회 및 세계선교 대회

2005 제 19차 총회 및 세계 선교대회

2005 **제 2차 OMC 목회자 세미나**

OMC 창립 35주년 기념 동양선교교회 주최, 월드미션대학교과 WEMA 후원으로 목회자 세미나가 열렸다.

2006 제 20차 총회

2007 제 21차 총회 및 목사 안수식

2008 제 22차 총회 및 목사 안수식

2009 제 23차 총회

2010 제 23차 총회 및 목사 안수식

2011 상파울로 OMC에서 열린 제 25차 총회 및 목사 안수식

2012 제 26차 총회 및 목사 안수식

2013 독일에서 열린 제 27차 총회 및 목사 안수식

2014 제 28차 총회, 선교대회 및 목사 안수식

2015 제 29차 총회 및 목사 안수식

2016 제 30차 WEMA 총회

2016

WEMA 30주년 기념 감사예배

World Evangelical Mission Alliance
세계복음선교연합회 30주년 기념 감사예배
2016. 05. 13(FRI) I The Oriental Mission Church
A Ω

강의실 모습

“월드미션대학교의 설립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 3세계의 선교를 위한 선교사 양성,
둘째, 미주지역을 비롯한 기타 기역에 보낼 목자의 양성,
셋째, 평신도 지도자의 양성과 평신도의 신앙교육
월드미션대학교는 마지막 때에 택한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신학교가 되어야 한다.”

월드미션대학교 개교예배에서

***

월드미션대학교
WMU

***

1989 **월드미션대학교 개교, 초대 학장 및 이사장으로 취임**

새로 설립된 월드미션대학은 1989년 3월 27일 교육관에서 신입생 32명과 교계지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격 속에 개교예배를 드렸다.

축 개교
세계선교신학대학 대학원
1989.3.27 WORLD MISSION THEOLOGICAL SEMINARY

World Mission University
월드미션대학교

초기 건물

1991

목회학 석사(M.Div., M.A.) 부교육국 인가 취득

1992

제 1회 졸업식

5월 31일 진행된 제 1회 졸업식에서 1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세계선교신학대학원 모스코바분교 개교예배
1992년 9월 27일

모스크바 세계선교신학원 개교

모스크바 분교에는 한인동포 15명, 러시아인 15명 등 30명이 입학해 선교사와 목회자 과정을 공부했다. 개신교 지도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월드미션대학교 모스크바 분교를 개교함으로 본격적인 러시아 선교사역을 시작했다.

대학 학부 인가 취득

1999

주정부 인가 취득. 유아교육학과, 평신도학과 신설

2001

제 10회 학위수여식

개교 후 모두 187명이 영광의 졸업을 했다. 졸업생들은 선교 사역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고 있다.

2003

월드미션대학교 교사 이전

500 Shatto Pl. LA 단독 건물 구입

새 교사 이전 커팅식

새 교사 이전 감사예배

2004

원격교육센터 신설

미연방교육국이 인정하는 높은 수준의 교육환경을 삶과 사역의 현장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 가을학기에 원격교육센터를 신설했다. 학업에 열정은 있으나 생활과 거리상의 제한으로 학교 캠퍼스에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선교사, 직장인, 타주 거주민들을 위해 진행하기 시작했다.

2005

음악학과 신설

2006

ABHE로부터 정회원 자격 부여

ABHE 정회원 가입 감사예배

2008

ABHE, TRACS로부터 일반학과, 상담학과를 인가 받아 신설

2월20일부터 22일까지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ABHE 연례회의에서 월드미션대학교는 BA과정의 크리스찬 상담학과와 일반학과의 설립을 ABHE로부터 정식으로 승인받았다. 이로써 월드미션대학교는 학부과정에 성서연구학과, 크리스천 상담학과, 일반학과, 음악과의 총 4개 학과를 두게 되었다.

원격교육과정 제 1회 졸업생 배출

"우리 일행은 일류나 이류 호텔에 가지 않고 시내에서 멀리 있는 삼류 호텔에 들었다.
보안에도 문제가 있고 내부 시설도 형편없어 미국 삼류에 비하면 너무도 별로인
호텔이었다. 그러나 우리 일행이 이런 곳을 찾으며 식사 때마다 라면을 직접
끓여 먹은 것은 선교비를 절약하려는 정신에서였다.
1주일 이상 이렇게 절약을 하다 보니 상당한 돈의 여유가 생겼다.
그렇게 절약을 해서 남은 돈 전부를 현지 선교사에게 주었고 가지고 갔던 옷까지
그들에게 내주었다. 심지어 속옷까지 주고서 감기까지 얻어 돌아 온 후 여러 날을
신음하며 지내기도 했다. 그러나 그 감기는 물러간 지 오래고, 그 기쁨은 나만 아는
기쁨으로 계속 내 가슴에 훈훈함을 더해 주고 있다."

자서전 『땀은 흘러도 기쁨은 샘물처럼』에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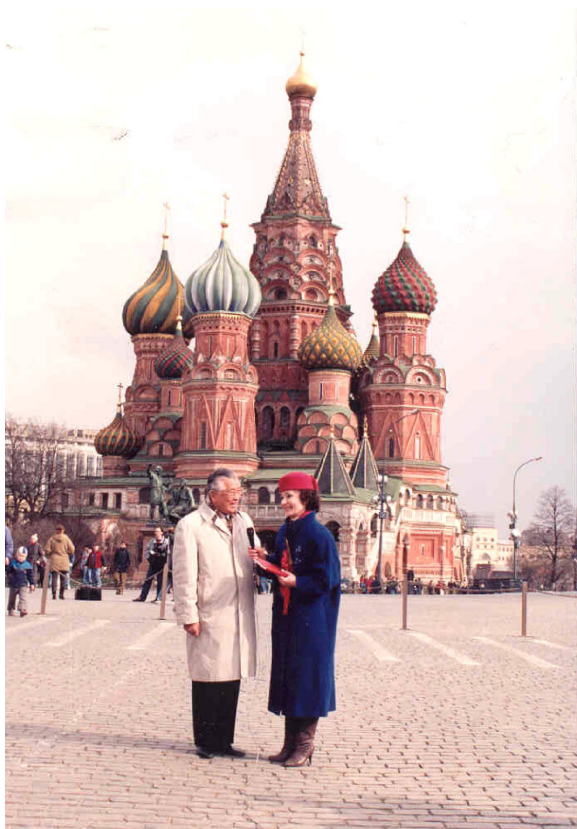
은퇴 후에도 선교는 지속된다

전 세계를 향한 멈추지 않는 선교 열정

***

" 설교를 하면서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현장에서 느낄 수가 있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러시아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였지만,
모두가 하나 됨을 강하게 느꼈다. "

1992 러시아 모스크바 최초 부활절 연합 예배 설교

1992년 4월26일 주일 새벽 5시30분 모스크바에서 부활절 연합새벽예배에 한인목회자로 처음 설교를 했다. 러시아 개혁교회 연합회와 모스크바 한인교회연합회가 주최한 부활절 연합새벽기도 예배에는 소련 붕괴후 가장 많은 8천명이 올림픽체육관에 모였다.

"1992년 4월의 부활절 새벽설교를 통하여 나는 러시아 사람들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그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게 되었고,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을 모색하였다. 그래서 러시아에 두 개의 신학교를 세우고, 러시아의 젊은이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시키고 있다. 하나님께서 러시아 사람들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주신 것이다. 오늘도 러시아에 그리스도의 푸르고 빛난 계절이 다시 오게 되기를 기도한다."

자서전 『지구촌은 나의 목장이다』에서

1994 **러시아 선교집회: 모스크바 전도대회**

"러시아는 현대선교의 가장 붐비는 현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러시아 교회는 지난 70년간 공산치하 속에서 온갖 고난을 다 겪어온 남은 자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역사의 진통 속에서 러시아 교회를 단련시켜 새로운 복음을 위하여 작은 불꽃을 피게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선교의 현장은 복잡합니다. 그러나 언제 선교의 문이 닫힐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갑수 목사(러시아 초대 선교사), 동양선교교회 러시아 선교소식, 1995년

모스크바교회 집회

레닌그라드 선교

2003 남아프리카공화국 선교지 방문 및 현지인 세미나 인도

남아공 스틸폰테인 지역 초등학교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은원 선교사와

남아공 스틸폰테인 지역 초등학교에서 교장 선생님께 선물을 전달했다.

남아공 케이프타운 탁아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지영애 선교사와

남아공 케이프타운 연합사역 세미나

“이은원 선교사는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아이들을 양자와 양녀로 삼아
집에서 함께 산다. 그 아이들이 ‘목사님 어서 오세요!’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천진난만하게 거짓 없는 인사를 할 때면 ‘하나님 안에서 한 식구구나!’
하는 감동으로 감격의 눈물이 흘렀다.”

자서전 『지구촌은 나의 목장이다』에서

“쿠바는 외국사람이 맘대로 설교하거나 침례식을 집례할 수 없기 때문에 교외의
한적한 곳에 나가서 흘러가는 강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침례식을 가졌다.
한군데서는 18명에게 침례를 주었고, 또 더 먼 곳에 가서는 16명에게 침례를 주었다.
그때 함께한 식구들과 친구들은 찬양을 하며 은혜로운 침례식을 축하했다.”

자서전 『지구촌은 나의 목장이다』에서

2004 **쿠바 원주민 침례교 총회 부흥집회 인도**

쿠바 침례식을 마친 후 기쁜 마음으로

한 영혼 초청 대잔
환영합니다.
2004년 10월 10일

2004

호주, 뉴질랜드 연합 집회 인도

동양선교교회의 지교회인 두란노 OMC(송기태 목사) 주체로 호주 지역의 한인 교회 연합집회로 모였다. 3일 동안 계속된 연합집회에는 매일 저녁 300명씩 모였다. 이번 집회를 통하여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새롭게 개척자의 삶을 살아가는 한인 이민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 용기와 꿈을 심어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바른 신앙 생활의 결단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2006 논산 훈련소 진중 세례식

1999년 5월15일 논산훈련소 진중세례

임동선 목사는 1999년 5월 15일 처음 논산훈련소를 방문, 세례식을 베풀었다.

임동선 원로목사는 1996년부터 해마다 미주의 군목 목회자와 함께 한국을 방문, 논산훈련소 신병들을 위한 진중 세례식을 집례했다. 군의 복음화가 '한국 복음화로 가는 길'이라고 믿었고 군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별했다.

2007

밀라노 OMC 설교

밀라노 지교회 주일 낮 예배에서

밀라노 OMC 제 2차 교회 창립 5주년 기념 예배

박상현 목사 내외와 교회 임원들 일동(음악 유학생들)

로마 OMC 설교

로마 지교회 담임목사 한평우 내외와

2007 러시아 모스크바신학대학 졸업식 설교 및 국제지도자 세미나 인도

2007 **임재순 사모 소천**

조의금 전액을 학교장학기금으로 기증했다.

어머니가 택하신 길이 얼마나 어렵고 좁은 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을 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어머니는 우리들에게 장한 어머니요 희생의 어머니도 사랑의 어머니이다.

우리 4남매 교육을 전담하시고 좋은 학교에 입학시키기시기 위해서 밤 늦게까지 주무시지 않으시고 공부하는 것을 지켜보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우리들의 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한 때는 돼지도 기르셨고 염소에 닭들, 심지어 꿀벌까지 기르시며 몸을 아끼지 않으셨다.

우리가 아버지 곁으로 이민 오기까지 2년 동안은 어머니께서 가장이 되어서 살림을 꾸려 나가셨다. 이민 생활 가운데에서도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늦도록 재봉틀을 돌리시며 벌어 오신 것으로는 살림과 학비를 감당하시기에도 부족해서인지 집에까지 일감을 구해 오셔서 저녁 식사 후 밤 늦도록 재봉틀 소리가 끊일 날이 없었다.

결국 직장에서 받은 육체적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이겨내시지 못하고 공장에서 쓰러지셨다. 그러나 어머니는 일어나셨다. 비록 한 손에는 지팡이를 짚으셨지만 다른 한 손으로 교인들과 아버지와 우리들의 손을 잡고 앞을 향하여 걷게 되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나는 어렵고 좁은 길을 택하여, 아버지를 내조하며 희생, 봉사하는 삶을 사신 우리 어머니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감사한다.

큰 딸 임승혜

좌측부터 큰 딸 임승혜, 임재순 사모, 작은 딸 임수향

2008 임동선 목사 설교집 CD 출간 감사예배

새 계명의 사랑
회고와 전망

2008

남미 브라질 및 파라과이 아마존지역 원주민교회 부흥집회 인도

통역 중인 김기종 선교사

2013 남아공, 잠비아,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헝가리, 체코 선교집회

남아공 프레토리아

헝가리 원주민교회

체코

잠비아

파리 한인교회

2014 온두라스, 과테말라,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선교집회

과테말라

니카라과 사역자 자녀 치료비 전달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2015 중국(삼양, 길림, 연길, 장춘, 춘양, 청도, 북경) 선교집회

중국 사평 삼자교회

중국 북경 시온교회

중국 춘양 가정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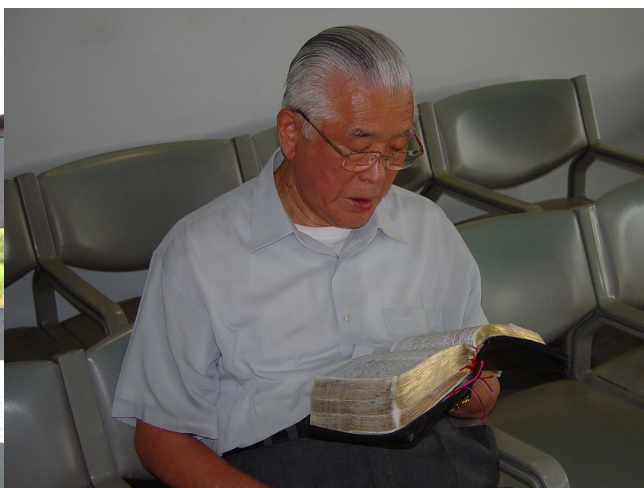
2016 2016년 9월 24일, 향년 93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다

BEACH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7

03

기록

가족과 추억

1969년, 성지순례 후 LA 공항에서 가족과 함께

1989년, 큰 누님과 여동생과 함께

1992년 7월, 맏아들 집에서 임재순 사모 68세 생신 축하 모임

1993년, 두 아들과 함께

1993년, 칠순 잔치에서 임재순 사모와 함께

1993년, 가족들과 함께

1995년 11월, 작은딸 집에서 모인 추수감사절 저녁

OMC 한집사님과 Dr. 한 조카(유학생시절)와 함께한 추수감사절
저녁 식사

1999년 7월, 막내아들 집에서 임재순 사모 75세 생신 축하 모임

2003년, 팔순 잔치에서 임재순 사모와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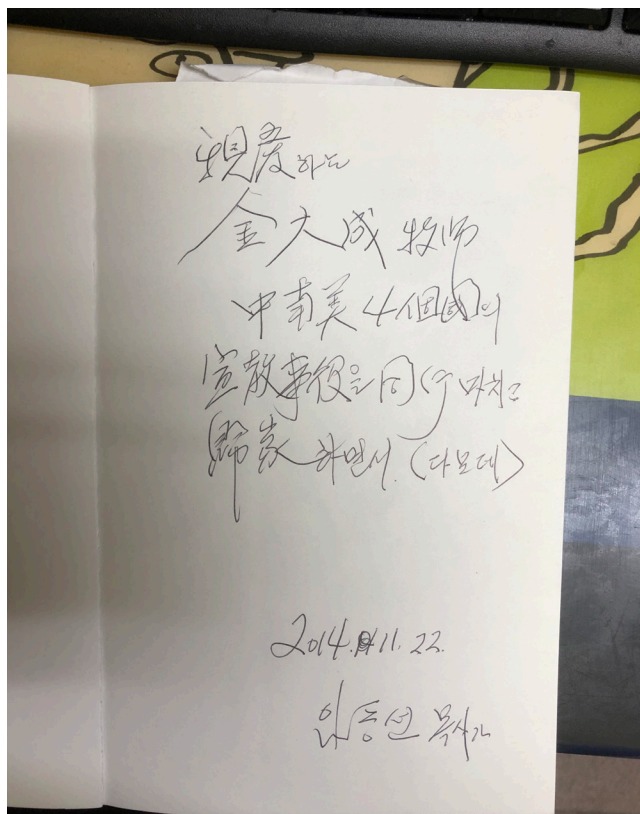
브라질에 계시는 김용식 목사님의 추억

1991년, 브라질 KCM 주최로 쌍파울로 동양선교교회에서 청년선교부흥회를 마치고 브라질 KCM 임원들과 함께

장코스모스 선교사님의 추억

1995년 2월, 시카고 레이크뷰장로교회 이종민 담임목사와 송석민 전도사 및 전도폭발 임원진들이 클리닉 준비를 위해 동양선교교회를 방문했다.

親愛하는
金大成 牧師
中南美 4個國의
宣教事役을 [illegible] 마치고
歸家 하면서. (디모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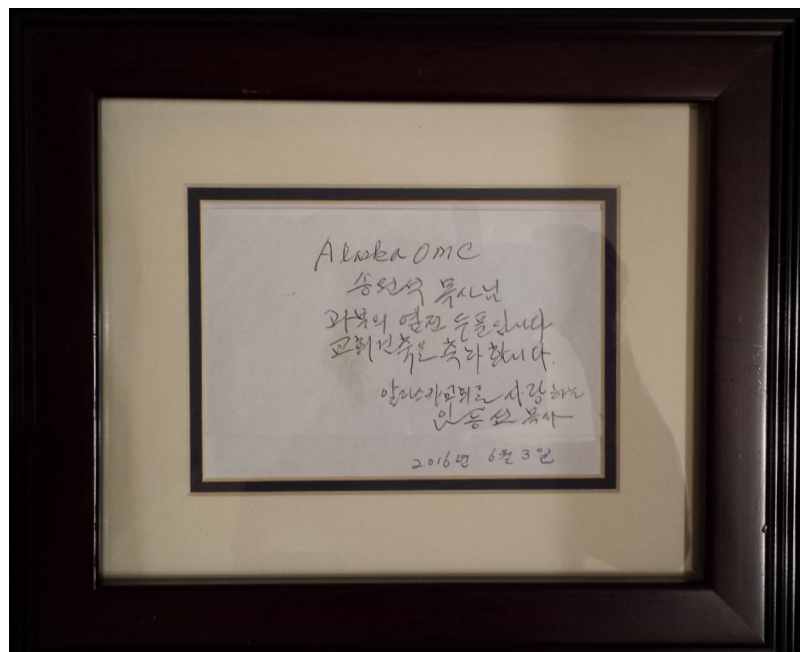
2014.11.22.

임동선 목사가

김대성 목사님의 추억

2014년 11월 22일, 임동선 목사님과 함께 중남미 4개국 선교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는 마지막 날 디모데라는 호칭을 붙여주시면서 써 주신 편지

2015년 11월 8일, 팜스프링 가을 수련회에서 맞이한 임동선 목사님의 92번째 생신을 축하하며

2016년 5월 11일, WEMA 제 30차 총회 때 조학철 선교사님과 함께

Alaska OMC
송원석 목사님
과부의 엽전 두닢입니다
교회건축을 축하합니다.
알래스카교회를 사랑하는
임동선 목사
2016년 6월 3일

2016년 6월 3일, 임동선 목사님께서 직접 쓰신 알래스카 OMC
건축헌금 증서

2016년 1월 26일, LA OMC 교육관에서 중국 길림에서 오신 한족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지게를 지고 계신 모습

김학송 선교사님의 추억

2015년 북경 WEMA 총회 때, 임동선 목사님께서 우리 부부를 숙소로 부르셔서 평양과 기대 사역에 대하여 회보를 들으시고 북한선교를 위하여 특별한 기도와 선교비를 주셨다.

2016년 LA WEMA 총회 때, 임목사님의 청년시절 북한에서 옥살이한 이야기를 들려 주시면서 우리 부부를 격려하셨다. 그 후, 2017년 5월에 진짜로 북한 감옥에 갇혀 1 년간 옥고를 치르고 석방되면서, 1 년 전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고무 격려가 예언적인 사건으로 나타남을 경험하였다.

임승표 장로님의 추억

2003년, 중국에서 임동선 목사님은 설교하시다가 공안에 체포되어 장시간 구금되었고, 석방되면서 공안원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셨다.

2016년, 온두라스-페루 남미 선교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LAX 공항에서 이는 임동선 목사님의 마지막 선교여행이 되었다.

임동선 목사 연보

1923.11.13	경기도 부천군 대부면에서 출생
1928~1929	한학자이신 조부 석천 임남수씨로부터 한학을 익힘
1930	초등학교 입학
1940	함경도 청진, 강원창도로 이주
1941	중국 왕청(북간도 왕청현 춘양촌 우정구톤)으로 이주
1942	간도성 명월구 간도 특별부대 입대
1942	만주국 봉천 육군 학교 졸업
1945	서울로 이주, 태능 국방 경비대 근무/ 진해해군해연대 경무주임
1945	공산주의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월북하였다가 바른 말함으로 스파이로 몰려 감금됨
1948.1.9	황학섭, 장갑성씨의 장녀 재순과 결혼
1949.6.15	서울신학교 졸업, 개척교회(여주읍 성결교회) 시작
1950.3.21	장남(승광) 출생
1950.7	기독청년 십자군 가입
1951.5.13	기독교 대한 성결 교회 제 6차 총회에서 목사 안수
1951	부산 동래 온천장 교회 시무
1952.8.24	장녀(승혜) 출생
1953.9	여주읍교회 시무
1954.5.15	공군 대전 항공병학교 입대(군목후보생)
1954.9	사천 공군 비행단 군목
1955.11.16	차녀(승향) 출생
1957.9.1	서울 공군 본부로 발령, 공군 군목 실장
1957.9.20	차남(승천) 출생
1958.8.2	텍사스 산 안토니오 랙크랜드 미 공군 군목학교 입학
1960.6	숭실대학교 졸업
1962.3.1	초대 군종감(공군대령)
1964.5.5	한국정부 주최 맥아더 원수 추도식 대표기도
1964.12.30	공군 예편
1965	첫 설교집 '절망의 극복' 출판
1965.5.19	미국 유학길에 오름
1970.6.30	북침례교 신학교 신학석사
1970.7.29	동양선교교회 창립
1972.6.4	남가주신학대학원 철학박사
1974.12.5	LA 웨스턴길의 건물 구입(오늘날의 동양선교교회)
1977.7	제 1차 유럽 전도 집회
1977.8	스페인 전도 집회
1978.11	일본 전도집회
1979	아시아 선교 센터 이사장
1980	남가주 한인교회 협의회 회장
1981.7	풀러신학교 목회학 박사
1981.1	제 2차 유럽 전도 집회
1982.5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 세계 선교대회 부회장
1982.6	캐나다 에드먼트 연합집회 인도
1983.1.25~3.17	안식년 제 1차 선교여행 (호주와 동남아시아)
1983.5.30~7.8	안식년 제 2차 선교여행(한국, 중국, 일본)
1983.8.30~10.14	안식년 제 3차 선교여행(아프리카, 유럽)
1984	아프리카 여행 (가나,가봉,케냐)
1987.7.9	세계복음선교연합회 설립
1988.4	할리우드 볼에서 제 68회 부활절 연합 새벽예배 설교
1988.12.10	성역 40주년 기념 및 정년 은퇴 기념 예배(65세)
1989.3.27	월드미션대학교 개교, 초대 학장 및 이사장으로 취임
1992.4	러시아 모스코바 최초 부활절 연합 예배 설교
1992.7	제 2차 한인 세계 선교대회 대회장
1994.2~3.21	유럽 4개국 순회 집회 인도
1993.12.11	월드미션대학교 총장으로 취임
1995.4.17	한국 논산훈련소 장병 4천명 합동 세례식
1995.7.2-10	독일 베를린 카이져슬러튼 집회 인도
1995.12.10-15	남미지역교회 부흥회 인도
1996.8.9-16	파푸아 뉴기니 선교여행
1997.3.13-16	한국 대구서문교회 집회 인도
1997.4.4-6	시애틀 동양선교교회 집회 인도
1997.5.3-6	아리조나 동양선교교회 창립예배 및 임직식
1997.5.12-14	세계복음선교연합회 총회 참석: 유타 OMC
1997.5.21-30	모스크바 신학교 졸업식 참석
1997.6.17-18	캐나다 뱅쿠버 세계복음선교연합회 목사 안수식
1997.6.25-7.13	남미 지교회 순회 집회
1997.10.24-11.3	한국 집회 인도(이천교회, 아세아연합신학대학 선교실 기공예배, 수원기독초등학교, 삼군통합 계룡대 국군교회 예배 인도)
1998.3.1~3.20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유럽 지교회 순방
1998.10.7~10.16	한국 논산훈련소 세례식 집례 및 개포교회 집회 인도
2000	한국 논산훈련소 5천명 세례식 집례
2002.2.1	나주 성결교회(서대인목사 담임) 신년 부흥성회 설교
2002.2.4	나주 교도소 신유부흥집회 설교
2002.2.6	영암도포교회(최경훈담임) 신년 부흥집회 설교
2002.2.10	전주바울성경교회(원팔원목사 담임) 주일예배 설교
2002.3.1	알라바마 헌츠빌장로교회(박종각 목사담임) 신년 부흥성회 설교
2002.3.20	서울신학대학교 학생 부흥회 인도
2002.6.9	알라스카 OMC에서 설교
2002.7.16	북가주남침례교회 주최 세미나에서 설교
2003.1.6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A. 단독건물 구입
2003.8.23	월드미션대학교 새 건물로 이전

2004.2.19	큐바원주민 침례교 총회 부흥집회 인도
2004.3.19	대구 대봉성교회 집회 설교
2004.3.22	지리산 지역 미자립교회 지도자와 교육자를 위한 세미나 인도
2004.4.1	뉴욕교회(장영춘목사담임) 부흥집회 인도
2004.4.20	L.A. 세계전도대회 대회장
2004.4.27	뉴질랜드지역 연합집회 인도
2004.4.30	두란노 선교집회 설교
2004.5.3	두란노 선교회주최 지도자 세미나 인도
2004.5.11	알라스카 OMC 연합회 설교
2006.2.3	시카고 인디아나 한인교회(강순목사담임) 부흥집회 인도
2006.2.19	대구(김홍기목사담임) 부흥집회 인도
2006.2.24	서울 신도장로교회 부흥집회 인도
2006.5.14	전주바울교회 부흥집회 인도
2006.5.15	전주 연합회(장소 서울 여전도회 회관) 설교
2006.5.21	육사 대학교에서 설교
2007.2.16	케냐선교지 방문
2007.2.18	발렌시아 OMC 설교
2007.2.27	밀라노 지역 연합 집회 - 밀라노 OMC 설교
2007.3.2~4	로마 지역 연합 집회 - 로마 OMC 설교
2007.3.5	파리 OMC 설교
2007.3.8	성결교단 100주년 기념식에서 인사 및 설교
2007.3.11	브라질 OMC(황은철목사담인)에서 부흥집회 인도
2007.3.12	브라질 OMC에서 목회자 세미나 인도
2007.20~22	콜로라도OMC 창립 4주년 부흥회 인도
2007.5.4~6	시애틀 OMC(이중령 목사담임)15주년 창립 및 장로 임직식
2007.5.15~18	샌디에고 한빛교회(정수일목사 시무) 21차 총회 연합회 설교
2007.5.27	휴스톤 제일장로교회(이의연목사) 부흥회 인도
2007.6.20~21	러시아 신학교 8회 졸업식 및 세미나 인도
2007.7.18	이스라엘 영사와 대화
2007.7.29	OMC 37주년 창립예배 설교
2007.8.10~12	유타 OMC 영적성장 및 장익성 목사님 취임식
2007.8.19	임재순사모 소천(조의금 전액을 학교 장학기금으로 기증)
2008.1.20	연방하원 의원출마하는 Charles Kim을 위한 모임에서 기도 인도
2008.2.3	오레곤 동양선교교회와 연합집회에서 설교
2008.2.12	Charles Hahn 하원출마를 위한 모임에서 권고의 말씀
2008.2.24	세리토스 OMC(석태운 담임목사) 임직식에서 설교
2008.3.9	다우니OMC(남종성목사담임)에서 임직식에서 설교
2008.4.6	새순교회(서동윤 목사담임) 부흥집회 인도
2008.4.19	임동선 목사 설교집 CD 출간 감사예배
2008.5.2	시애틀 OMC(이종용 목사담임) 부흥집회 인도
2008.5.13	세리토스OMC(석태운 목사담임)에서 제 22차 연합회 총회에서 설교
2008.5.23	과테말라,멕시코 연합집회 세미나 인도
2008.5.28	코스타리카 OMC (유종수 목사담임) 집회 인도
2008.6.1	코스타리카 OMC 헌당식에서 설교
2008.7.7	남미: 브라질 파라과이 아마존지역 원주민교회 (김기종 선교사 담임) 부흥집회 인도
2008.9.15	알라스카OMC 이성원목사님 취임예배에서 설교
2008.11.18	발렌시아 OMC 추수감사절 감사예배에서 설교
2008.12.7	제 2회 Korean-American Day 제정 전국대회 초청 시상식에서 권면의 말씀
2008. 12.14	샌디에고 OMC에서 설교
2013.5.10	남아공, 잠비아,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헝가리, 체코 선교집회
2014.5.26~7.14	온두라스, 과테말라,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선교집회
2015.5.27~6.13	중국, 심양, 길림, 연길, 장춘, 춘향, 청도, 북경 선교집회
2015.8.14~18	브라질 상파울 선교집회
2016.8.19~9.12	남미: 온두라스-페루 선교여행
2016. 9.24	향년 93세를 일기로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음

아프리카 순회선교 5회를 포함하여 해외 선교사와 현지인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를 인도한 나라는 다음과 같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쿠바, 브라질, 아르젠티나, 파라과이, 콜롬비아, 에콰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키타라과, 코스타리카, 러시아,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대만, 필리핀, 싱가폴, 호주, 뉴질랜드, 파퓨아뉴기니,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영국,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터키, 이스라엘, 케냐, 남아공, 보츠와나, 카자흐스탄, 코트디부아르, 짐바브웨, 모잠비크, 가봉. 그 밖에,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지구촌 1,000여 곳에서 부흥집회를 인도했다.

저서

1965.4.1	절망의 극복
1985.12.1	스스로 개척하라
1999.6.20	심은대로 거두리라
1999.12.1	환란날의 신앙
1999.12.10	새 계명의 사랑
1999.12.15	땀은 흘러도 기쁨은 샘물처럼(목회 간증집)
2000.6.30	회고와 전망(절기설교 모음집)
2001.9.1	경주자의 인생
2003.3.25	에덴동산에 왜 선악과가 있었을까(교리설교)
2004.12.10	지구촌은 나의 목장이다(삶과 신앙의 이야기)
2008.4.5	이 시대의 희망 오직 복음
2021.3.5	땅끝까지
2022.10.30	꿈을 가진 신앙
2023.7.15	성장하는 신앙
	절기 속의 비밀
	행복한 가정과 사회

수상

1962	Republic of Korea Air Force General's Award (대한민국 공군참모총장상)
1963	Republic of Korea Presidential Award (대한민국 대통령상)
1974	Republic of Korea National Defence Minister's Award (대한민국 국방장관상)
1987	Los Angeles City Service Award (로스앤젤레스 모범 시민상-톰 브래들리 시장)
1987	Resolution of State of California Lt. Governor Leo McCarthy Los Angeles African American and Korean Cultural Exchange Award
2007	The First Honorary Korean American Award (역사를 빛낸 인물상(한인 역사 박물관))
1982	Korea National Dongbakjang Award of Service in Education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교육공로))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9:35

아직도 세계는 하나님의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다.
헌신된 사람을 부르고 있다.

임동선 목사

임동선

임동선 목사 탄생 100주년 기념화보집

발행인 임성진
발행처 월드미션대학교
주소 Wolrd Mission University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대표전화 213-388-1000
발행일 2023년 7월 3일
편집 임성진 · 박소린
그림 · 디자인 박소린
제작 쿰란출판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 6
02-747-1004
제1-670호(1988.2.27)

a
visionary
leader